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고양시는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모 받아 1·2차 서면심사를 거쳐 상위 4개 사례를 선정하고 본선 발표심사에서 전문가와 온라인 국민투표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고양시에는 특별교부세 1억원이 수여된다. 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발휘한 좋은 사례로 평가 받았다.

야의 선별진료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고양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 시행을 결정한 뒤 3일 만에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위기관리행정을 펼쳤다. 타 지자체는 물론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하는 등 K-방역을 선도한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당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표준운영모델로 채택되기도 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금껏 그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창의적이고 과감도 높은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김철우 보성군수, 정세균 국무총리 만나 보성 고속열차 등 지역 현안 건의

정세균 국무총리, 김승남 국회의원 등 면담 예산 반영 요청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난 18일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공동협력사업을 위한 정세균 국무총리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공동 안전에 대해 건의하고 보성군 지역 현안을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남해안 남중권 공동유지, 영호남 화합의 인도교 조성, 섬진강 휴게소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 등을 건의했다. 또, 1조 7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주송정~보성~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건설 기간 단축, 패스트 트랙 추진 등을 비롯해 보성군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철우

군수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지역구 의원인 김승남 국회의원과 부처별 예산 관련 국회의원들을 만나 2021년 보성군 주요 현안 사업과 역점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등을 적극 설명하고 정부예산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보성군 국비 요청 현안 사업은 해양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탐방로 조성사업 250억원, 보성형 에너지 자립 산악형 자연 치유 관광단지 조성사업 200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255억원, 보성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200억원 등이다.

보성군은 2021년 2,324억원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하며 전남 군단위에서 교부세 증액을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며 현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영민기자



[칼럼] 어린이는 미래의 국가자산이다.



11월 20일 오늘은 1954년부터 유엔과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어린이날이고 어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물론 어제 하루만 요란했다. 정치인들의 아동치료센터 방문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새로이 뭐라도 발견한 것처럼 정책 대안이 제시되지만 이렇다 말고 말로만 끝나며 그때뿐이었던 게 어제 오늘 일인가.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도 벌어졌고 어쨌거나 긍정적으로 보면 그나마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가졌다는 건 다행이다. 지금 이 글을 보는 독자는 어릴 때가 없었을까. 누구말대로 귀하게 매 한대도 안 맞고 컸다면 다행이요 어떤 이어나 상황이든 폭행이나 굶주림이나 기타 학대를 받았다면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요즘 하는 말로 트라우마라고 하지만 당하고 나서 일종의 후유증은 성인이 되어서도 상흔이 남기 마련이다. 그렇게 아픈 상처는 가슴 한 켠에 자리 잡아 일명 대물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육하는 감정에 학대의 실행에 대한 합리화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날 때부터 성인은 없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연구는 대교까지 중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어린이나 아동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상당히 이기적이다. 자신의 이익만 잘 키우면 된다는 욕심이 종래에는 잘못 된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고 심지어 사회적 동지가 될 확률도 있으며 반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또래 아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내 아이 못지않게 남의 아이도 중요하며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정부차원의 항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작년 대비 43조가 증가한 555조 8천억 원이다. 이중 보건, 복지, 노동이 200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삼분의 일을 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2021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중 보육 관련 예산을 제외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일반회계로 운용되는 예산 약 2조 5511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되는 보건료 예산 약 428억 원을 포함하여, 약 2조 5939억 원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 76조 1,316억 원 대비 3.4% 밖에 안 되며 작년 대비 3.8%나 줄었다는 점이다. 모든 복지나 현실적 해결책의 열쇠는 돈이다. 적은 돈으로 많은 아이들의 복지를 개선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정부정책이나 큰 틀에서 보는 시각은 이쯤하고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어린이들의 실상과 현주소는 어떻게 지난 2019년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사례는 총 2만3992건으로 하루 평균 60여건 발생했으며 학대로 인해 통계에 잡히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른 아동의 45.2%가 1세미만의 영아라는 사실이

박영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 올 하반기 온실가스 감축량 지난해 대비 170% 달해

아파트단지·에너지다소비사업장 등 에너지 다량 소비 건물 중 83.8% 가입

올 하반기 6개월 간 서울시민의 20%가 넘는 217만 여명의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이 전기·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247,137톤CO2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절감량은 지난 '19년 온실가스 감축량 145,616톤CO2 대비 170% 절감했다. 시민들의 에너지 절감 노력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년도 하반기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추진사업 평가결과'를 19일 공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6개월간 에코마일리지 회원이 도시가스와 전기, 수도 절약을 통해 온실

가스를 감축한 양은 각각 124,544톤CO2, 121,981톤CO2, 612톤CO2로 총 247,137톤CO2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개인회원 45,479명, 사업자단체 3,959개소가 에코마일리지에 신규 가입해 에너지 절감에 동참했다. 특히 에너지다소비사업장과 아파트단지, 주상복합건물 등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는 건물 총 4,151개소 중 3,478개소가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해 가입률 83.8%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21년 상반기에 서울지역 아파트단지 및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총 4,151개소 중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지 않은 673개소를 포함해 전체대상으로

아파트단지 경진대회 개최 및 한국에너지공단·자치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에코마일리지 회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치구별 온실가스 감축률을 살펴보면 최근 2년 동기간 평균 대비 중구가 11.4% 감축해 최대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구에서는 평균 4.5%를 감축했다. 자치구별 올 하반기 에코마일리지 추진사업 평가결과, 회원가입 실적, 회원정보 정비, 홍보 등 종합평가에서 양천구 등 총 6개 자치구가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우수 자치구는 성북·강남·성동·서초·동작·서대문·마포구 등 총 7개 구가 선정되어 서울시는 최우수 자치구에 각 1,550만원, 우수 자치구에 각 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매년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추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21년도에도 시민·환경단체·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에코마일리지 연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2만톤CO2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에코마일리지는 217만 시민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이라며 "향후 승용차마일리지와 통합하고 자전거·재활용 등 다양한 실천 분야로 확장해 시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Advertisement for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Ssangyong The Platinum Premier)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modern apartment complex and the text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국가균형발전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구현을 위한 '숲 미래와 재생에너지 지역산림뉴딜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숲의 미래와 재생에너지 등 산림을 활용한 그린뉴딜과 지역균형뉴딜을 모색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오는 20일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와 분과소속 김정호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허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림청,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농어업정책포럼, 한국산림과학회,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가 후원한다. 20일 토론회에서는 최재관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기후위기 대응, 산림을 통한 그린뉴딜이 해답이다'의 주제로 이따리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과장이 'K-포레스트 추진계획 기반 산림뉴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주제로 한규성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부 교수의 '산림뉴딜, 미래세

대를 위한 지역밀착형 산림, 임업, 목재산업'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지며 각 토론자의 개별 발표 이후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을 좌장으로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7월 '한국산림뉴딜'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이의 구체적인 시행계획 발표와 함께, 그린뉴딜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산림의 활용방안과 지역균형뉴딜 차원에서의 산림뉴딜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림뉴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허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산림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모델 개발과 효과적인 산림자원 활용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지역별 산림자원에 적합한 모델 발굴과 지역임업인의 소득원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뉴딜의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구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숲 미래와 재생에너지! 지역산림뉴딜 어떻게 할 것인가

2020. 11. 20. (금) 10:30-12:3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층)

목적
K-뉴딜 사업 중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을 활용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국가균형발전 위한 산림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산림뉴딜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형성

주요내용
1) "기후위기 대응, 산림을 통한 그린뉴딜이 해답이다, ... 미래의 에너지산업혁명을 이룩한다."
2) "K-포레스트 추진계획 기반 산림뉴딜의 구체적 실천방안, ... 이따리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과장"
3) "산림뉴딜,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밀착형 산림, 임업, 목재산업, ... 한규성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부 교수"

주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농어업정책포럼, 한국산림과학회,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청,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6회 정례회 조례안 등 심사

제66회 정례회 2차 회의 개최 ... 총 26개 안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26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통해 조례안 17건, 동인안 9건을 심사한 결과 총 26건 중 23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그 중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 1건을 보류했다. 채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에 기여한 시민

및 시민단체, 기업, 공무원 등에 대한 시장의 포상 수여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주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시장이라고 지칭된 부분을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바꾸고 고쳐 수정 가결됐다. 또한 채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다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

최재은기자

정진철 시의원, 위례선 트램 '패스트트랙' 확정 ... 준공 앞당기도록 최선

서울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 일명 '턴키' 방식 승인

10년을 넘게 끌어온 '위례선 트램' 사업이 지난 10월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은 데 이어 서울시는 패스트트랙 방식인 '설계시공일괄입찰', 일명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기로 확정했다.

이로서 공사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시는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대한 대청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를 위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서 실시설계와 공사를 일괄적으로 동시에 수행해 공사기간을 '기타공법'에 비해 훨씬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10년 넘게 끌었던 오랜 숙원사업이 송파주민들의 성원으로 확정됐고 곧이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공사일정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며 "준공일정을 앞당기고 지역 명물로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례선 트램 사업은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친환경 신고용수단인 노면전차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5호선 마천역을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단독주택 예정지, 위례중앙광장, 위례 트랜зит물을 거쳐 8호선·분당선 북정역까지 총 10개소 정거장을 연결하는 분선 위례 트랜зит물을 경유해 현재 공사 중인 8호선 추가역까지 2개소 정거장을 잇는 지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4년 준공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홍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계은
정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계 부: 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 포 르 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 스: 02)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도시가스 요금제 개편, 시민을 중심으로 재고해야"

"초과이익 공유제는 특정 독점사업자에 특혜"

장상기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도시가스 요금제 개편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수익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도시가스는 서울, 예스24, 코원, 귀뚜라미, 대륜 등 5개 회사가 권역별로 독점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의 도시가스 요금은 총평균 방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공급회사와 무관하게 동일한 가스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총평균 방식은 공급자가 비용부담이 큰 시설투자를 고려 결과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가 초과이익 공유제를 추진하는 주요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도시가스 요금제 개편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상기 의원은 "이익을 많이 남긴 회사들이 기금을 조성해 이익을 적게 남긴 회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초과이익 공유제는 인건비와 비용을 절감해 원가를 낮추더라도 그 성과가 경쟁회사를 지원하는 데 쓰이는 구조"며 "이는 공급자들의 비용 불풀리기와 도시가스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편차손실의 대부분이 인

건비와 계열사 간 지급수수료에서 발생한다"며 "시설투자로 인해 줄어든 이익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전해줘야 한다는 초과이익 공유제 추진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54억원의 편차손실이 발생한 A사의 경우, 인건비에서 27억원, 지급수수료에서 1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반면 공급설비 감가상각비는 12억원의 편차이익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면 도시가스 시설투자가 아니라 독점기업의 인건비와 계열사 간 거래를 지원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 장 의원의 분석이다. 장상기 의원은 "비용절감을 통해 낸 이익을 경쟁회사와 공유하는 것은 형평성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서울시가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추궁했다. 서울시의 5개 도시가스 공급자들이 대형 로펌에 자문한 결과 불법과 위법의 소지가 다분한 초과이익 공유제를 서울시가 계속 고집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다. 장상기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제 개편에 앞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이 합당하지, 5개사가 제출한 비용추계가 타당하지, 안전을 위한 설비투자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추궁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박귀성기자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경기 공정한세상' 정책사업 촉구

경제노동위원회 이해영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해영 의원은 지난 18일 종합감사에서 경기도민과 함께 코로나19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정의 가치를 담은 경기도 정책사업을 주문했다.

이해영 의원은 "기업이 환경을 살리는데 앞장설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세상은 기후위기로 발생한 코로나19 전과 후로 구분되어진다"며 "오늘도 1,370만 경기도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2020년 진행한 많은 사업이 축소, 일몰되고 증액 또는 긴급으로 신규 예산이 편성, 집행됐다"며 "경기도는 변화될 '21년을 맞이하는 시민의 삶에 마중물 같은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전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와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기를 바란다.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좋은 성과는 격려하는 당연한 행정 과정은 경기도민을 향한 더 큰 서비스로 돌아갈 것이다"며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안 의원은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알 수 있는데, 경기도가 도민에게 홍보하고 싶은 사업과

진행되는 사업을 도민에게 알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일률적인 보도자료 배포가 아닌 정책의 깊이를 담을 수 있도록 고민해줄 바란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오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 돌입하면서 심각한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경기도는 여성, 청년, 중장년, 장애인 등 일률적인 정책이 아닌 맞춤형 사업으로 도민에게 현실적인 족집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당부사항과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다가올 21년도 예산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상천기자



www.yyg.go.kr

FOOD

Natural Food From Yeong Yang To You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양에서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을 만나보십시오

영양군 YEONGYANG-GUN

영양을 맛보다

해마다 서울광장을 붉게 수놓는 명품 영양고추에서, 당도 높은 사과와 자연이 길러낸 온갖 농특산물까지 기다려오신 내추릴 푸드를 만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따의 가치, 우리 것이라는 자부심, 믿고 먹는 품질로 영양만큼 대한민국적 식탁에 영양군민이 함께합니다.

명고 먹는 영양군 농특산물 시리즈

대한민국 명품 으뜸영양고추·산간고랭지 영양예실천사과·아삭아삭 시원달콤 영양배 피루미인 영양복숭아·저농약인증 영양포도·해발 1,219m 영양수박·비타민 단단 영양고랭지체스·산에서 나는 고기 영양더덕·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영양버섯·전국 생산량 70% 영양천궁·고랭지 무공해 영양잡곡·뽕으로 기른 영양임배

ida INTERNATIONAL DARK SKY ASSOCIATION
altaslow
영양군농업

도, “수도권 확산세 매우 심각...연말 모임 자제해야”

포천시 요양시설 관련 17명, 안산시 수영장 관련 5명, 가구업자 모임 관련 8명 등

경기도가 최근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연말 모임 자제를 당부했다. 이회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성탄절, 송년회 등 행사나 모임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단행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식당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수시로 환기시키기 어렵고 마스크를 착용했다더라도 2m이상 거리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되기 쉽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87명 증가한 총 6,137명으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포천시 요양시설 관련 17명, 안산시 수영장 관련 5명, 가구업자 모임 관련 8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

자는 11.4%인 10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28명으로 32.1%를 차지한다. 포천시 요양시설 민음의 집에서 근무하던 강원도 철원군의 요양보호사 5명이 지난 16일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17일 민음의 집 입소자 및 직원 등 1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18일 0시 기준 포천시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는 경기도 집계 17명, 타시도 포함 22명으로 늘었다. 확진자들은 16~17일 요양원 입소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현재 요양원 2층을 능동감시 중이며 3층부터 5층까지 코호트격리 중이다. 도는 격리자들에게 3일마다 전수검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산시 수영장에서 지난 12일 수영장 회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13일부터 17일까지 확진자의 배우자 및 수영장 회원 8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18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총 9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13일까지 수영장을 방문한 677명에 대해서 검사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최



조 확진자의 정확한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가구업자 모임과 관련해서는 지난 15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16일 확진자의 가족 2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고 17일 8명이 추가되면서 오후 6시 0시 기준 총 11명을 기록했다. 17일 최초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추가확진판정을 받았으며 16일 먼저 확진된 가구업자 근무자의 동선을 조사한 결과 9일 가구업 관련자 11명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접촉자 10명의 전수검사를 한 결과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 고양, 파주, 포천 등에서 가구업 운영, 배송 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도는 개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를 분류하고 있다. 또한 확진자가 방문한 고양시 당구장 29명, 축구단 22명 등에 대해서 검사안내 및 수동감시 실시 중이다. 18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4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47.9%인 323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49개 병상 중 38개를 사용 중이다. 인천시에 소재한 제3호 생활치료센터와 고양시에 소재한 제4호 생활치료센터에는 17일 오후 6시 기준 270명이 입소하고 있어 54.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수용가능 인원은 225명이다.

경남도, 밀양강 회귀 연어 활용한 종자방류사업 추진

낙동강 하구둑 건설 이래 첫 직접 채란을 통한 자원조성 나서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연어 방류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연어 어미고기 50마리를 포획해 인공채란작업으로 수정란 약 10만 알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포획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연어 어미고기의 포획을 위해 포획·채취금지 해제 허가를 받아 15일 허가받은 50마리를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 포획수량을 늘려 더 많은 수정란 확보를 통한 연어의 자원량 증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민물고기연구센터는 1968년 경상

남도 연어인공부화장으로 개소해 연어 종자생산 및 방류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1983년 낙동강 하구둑 건설 공사 등으로 인해 연어종자방류사업이 중단됐다가 2009년부터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연어 수정란을 협조받아 부화 및 사육한 어린연어 260여만 마리를 밀양강, 섬진강 등에 방류해 왔다. 이번 연어 어미고기의 대량 포획은 지속적인 연어 어린고기 방류사업과 낙동강 하구둑 시범개발 등의 효과로 보여진다. 강대현 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은 “우리 센터는 최초 개소 목적이 연어 인공부화 및 방류에 있었던 만큼 이번 연어 어미고기의 대량 포획을 잘 활용해 연어자원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며 이번에 생산한 연어 수정란은 내년 3월까지 5cm내외의 건강한 어린고기로 키워 도내 주요하천에 방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2020년 시민 중심의 공감·소통 행정 펼쳐

시민과의 데이트,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진주시는 시민들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규일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인 ‘시민과의 데이트’와 ‘시민소통위원회’를 올해도 내실 있게 운영해 시정운영의 제1의 가치인 공감·소통행정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일상 속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고충 및 여론을 직접 청취하고 시정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취임 이후 매일 시민과의 데이트를 진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왔다. 시민과의 데이트, 올해 21건 민원 민원·건의사항 채택 지난 1월 대곡농공단지 입주기업체와의 올해 첫 데이트 이후 11월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단체인 카나리아 협동조합과의 간담회까지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시민과의 데이트를 진행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 여론과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온 원로들과의 데이트를 시작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근로자들, 코로나19로 인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과 성금을 모금해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는 의료진

을 위해 기부한 대학생,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소상공인과의 만남, 그리고 공예품대전 수상자, 비단길 청년몰의 청년상인, 1인 영상 제작자 및 웹툰 작가단 등과 데이트를 진행하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을 만나왔다. 올해 11회에 걸친 시민과의 데이트를 통해 21건의 민원·건의사항이 채택되어 추진 완료되었거나 추진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는 소통채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민소통위원회, 올해 22건 불편·제도 개선사항 제안 또한, 시민소통위원회는 조규일 시장의 시민 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공약사업으로 2018년 12월 시의원, 시민단체, 전문직업인 등 각계각층의 소통위원 20명을 위촉해 출범했다. 각 분야별 시민의견 수렴 및 참여 제고를 위해 행복한 시민, 건강한 사회, 경제 활성화, 도농 발전, 찾고 싶은 진주 등 5개 분야로 구성해 공개모집을 통해 100명의 분과회원 위촉을 마치고 2019년 4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해 시민소통위원회가 발굴, 제안한 58건의 안건 중 42건



을 시정에 적극 접목해 추진하고 이중 예산사업 33건은 2020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2기 분과위원을 공개 모집해 선정했고 시민소통위원회도 7명을 새로 위촉해 위원회를 재구성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활동 시작 초기에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모임에 제약이 많았으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는 5개 분과에서 16차례 회의를 통해 22건의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불편사항과 제도 개선사항을 제

안했다. 또한 시민의 여론이 민감한 시의 정책에 대해 관련자, 공무원 등을 초대해 의견 청취를 하거나 현장 탐방을 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시장의 주요정책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적극 펼쳐 왔다. 조규일 시장은 “현장에서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시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여성친화기업 15곳 선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선 기업과 인증 협약 체결

대전시는 18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에 앞장선 15개 기업과 인증협약을 체결했다. 선정기업은 선사인혜요양병원 예사랑실버케어 유엔아이니싱홈2 제이엘테크퍼레이션 한아름실버케어 시크릿우먼 대전참사랑의료재단 베스티안우송병원 케이티씨에스 S&K 병원 비비씨주식회사 한전원자력연료 워커힌병원 이노바이오써지 위월드다. 선정된 여성친화기업은 여성 전용휴게실 설치 및 수유용품 구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등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이다. 또한, 여성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기업의 핵심인재로 양성하도록 지원하며 모성보호와 정서 퇴근 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채용·승진·임금 등에서 차별을 해소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선정된 여성친화기업은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 공개 공모신청을 받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현장방문평가를 받았으며 11월 6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대전시가 이번에 선정된 여성친화

기업은 시내 30인 이상 기업 중 여성 근로자가 20% 이상이거나 여성 근로자 수 20인 이상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 개선실적과 모성보호제도 도입,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및 근무환경 조성, 여성능력개발 교육 지원 등 30개 항목을 평가했다. 대전시는 인센티브로 기업환경개선금, 인건환판, 양성평등교육 강사 파견,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여성인재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조직문화를 구축함으로써 여성들의 고용환경 향상을 유도하는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앞으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여성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측면과 여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실천에 앞장서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행복해야 하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여성이 행복해야 한다”며 “아직도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직장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 북극협력주간, 포스트 코로나시대 북극협력 논의

극지관문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의 한걸음

DAY 1 12.7	DAY 2 12.8	DAY 3 12.9	DAY 4 12.10	DAY 5 12.11
개막식	정책의 날	과학의 날	평화의 날 / 문화의 날	시민의 날 / 체육의 날
국제협력주간 개막식	북극 전문사설연구소 세미나	한국 북극과학연구소 세미나	제1회 북극포럼 국제세미나	시민참여대회
북극세션	북극 세션	북극 세션	북극 세션	북극 세션

부산시는 2020 북극협력주간이 오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북극협력주간’은 2016년부터 시작되어 5회째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내 북극 관련 최대규모의 국제행사로서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주최하고 KMI와 극지연구소가 주관한다. 국내외 북극 전문가들이 모여 북극 관련 정치·경제·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극 현안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학술행사이다. 2020 북극협력주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극협력’을 주제로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일 ‘정책의 날’ 9일 ‘과학의 날’ 10일 ‘해운의 날’ 11일 ‘시민의 날’로 정해 분야별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일반 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극지상식 골든벨 대회 시민극지강좌 북극 사진전과 같은 다채로운 시민 행사가 마련되어 극지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극지상식 골든벨 대회는 북극협력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북극협력주간이 개최되는 5일 동안 매일 참여할 수 있다. 최종 남은 사람에게

1/N 방식으로 상금 및 기념품 등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민극지강좌는 일반인에게 생소할 수 있는 극지를 ‘북극의 숨겨진 이야기들’, ‘사진 속 극지이야기’라는 주제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다.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북극 사진전은 1~6회 극지사진 공모전 수상작 중 우수 작품 40점을 선발해 선보인다. 국내 최대규모 북극 관련 행사 기간 부산시청 도시철도 지하동로에서 전시되어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번 북극협력주간 행사의 자세한 일정은 북극협력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일부터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사전등록 및 의견등록에 참여한 사람에게 한해 추첨을 통해 기념품 등도 배부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북극 관련 최대규모 국제행사가 올해도 부산에서 열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올해는 시민참여 행사가 많은 늘어난 만큼, 시민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시어 북극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창원시, 전국 최초 '독립운동가' 담은 새로운 누비전 발행

내년 지류 누비전부터... 창원의 독립운동가 새겨 명예 드높인다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독립운동을 새긴 새로운 도안으로 지류 누비전을 내년 6월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8일 밝혔다.시는 발행 1년 만에 지역 내 주요 소비수단으로 정착한 누비전에 창원의 독립운동가를 새겨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창원지역의 독립운동가를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한국조폐공사가 제공하는 공동디자인을 활용해 지류 상품권을 발행했으나, 독창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고심하다 '독립운동가'를 상품권에 반영해 달라는 제안과 취지를 고려해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새기기로 확정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디자인을 반영해 발행한다.



다.창원지역 독립운동가는 경남 전체 1,323명 중에서 145명으로 가장 많은 인물이 있다. 이들 중 훈격이 가장 높은 건국훈장 독립장에는 3.1 독립만세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배포했고 이후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이교재 선생과 종교인으로서 일본의 신사참배에 항거한 주기철 목사가 있다.건국훈장 애국장에는 15분이 추서됐으며 마산 독립만세운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항일정신 계몽활동을 활발히 펼친 명도석 선생, 의열단을 조직해 항일무력투쟁 벌인 배중세 선생, 재학 중 조선독립당을 조직해 항일운동을 펼친 김진훈 선생, 대표적인 항일독립만세운동인 '4.3 삼진 연합 대의기'를 주도하다 순진 김수동, 변갑섭, 변

상복, 김영환 선생 등 8명의 의사가 있다.시는 올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누비전 1,700억원을 발행했으며 내년에는 2,000억원을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원의 독립운동을 담은 새로운 도안의 지류누비전은 내년 2월부터 발행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은 3·1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목숨을 잃거나 고문 등 갖은 고초를 겪은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계신에도 그동안 순교한 희생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누비전을 통해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홍호기자

경기도-유럽, 람록시펜 등 코로나19 치료제 국제공동연구 합의

EU에서 공동 컨퍼런스 제안해 공동연구 물꼬

경기도와 유럽연합 지원 연구기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골다공증 치료제 '람록시펜'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슈퍼컴퓨터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 대표기관인 이탈리아 대학연합연구 컨소시엄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공동참여의 항서와 비밀유지협약'을 18일 맺었다.한국에서는 경과원과 함께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코로나19 치료약물 발굴을 수행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이번 협약은 '람록시펜'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연구 성과를 갖고 있는 유럽측 제안으로 시작됐다.앞서 6월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한국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람록시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효과를 확인했다는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양측 참여



기관은 람록시펜의 비임상, 임상시험계획 및 결과, 슈퍼컴퓨터를 통해 발굴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물질에 대한 정보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동페제약은 이탈리아 내 450명의 임상참가자를 대상으로 람록시펜 및 위약을 7일간 투여 후 12주간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추적 관찰하는 내용의 임상 1상을 승인받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과원은 지난 10월 초 아주대의료원을 주관 기관으로 경기도의료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등이 참여해 람록시펜에 대한 연구자 임상시험계획서를 식약처에 신청한 바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과 유럽에서 각각 연구가 진행되고 있던 람록시펜에 대한 연구가 협력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공유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앞당기고 세계적 대유행의 종식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화성시 청소년들, 미래 화성을 위한 10가지 제안

'2020 화성시 청소년 지역회의' 권역별 회의로 최종 안건 발표

화성시 청소년 지역회의가 8월부터 9번의 권역별 회의를 통해 채택한 '2020년 최종의제'를 발표했다. 청소년에게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화성시 청소년 지역회의'는 서부와 동부, 동탄 권역 14~19세 청소년 총 229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지난 8월 1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서부와 동부 각 3개 분과, 동탄 4개 분과로 나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의제를 발굴해왔다.그 결과 동부권과 동탄권은 14일 서부권은 15일 올해 최종 의제를 발표했다.이들이 제안한 의제는 화성호 습지보존, 청소년이 스스로 운영 관리하는 공간 확충,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기업 연계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쓰레기 배출 캠페인, 안녕동과 병점역 보행로 개선, 청소년 선거교육, 학용품재활용, 불법주정차 방지 캠페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엘리베이터 도입 등이다. 시는 실행가능성 및 효과성을 부서별로 검토해 내년도 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서철모 화성시장은 "환경, 교육, 교통, 인권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더 나은 화성



시를 위한 청소년들의 열정에 감탄했다"며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발굴한 의제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안산시, 시민 10명 중 9명 '카카오 데이터센터 긍정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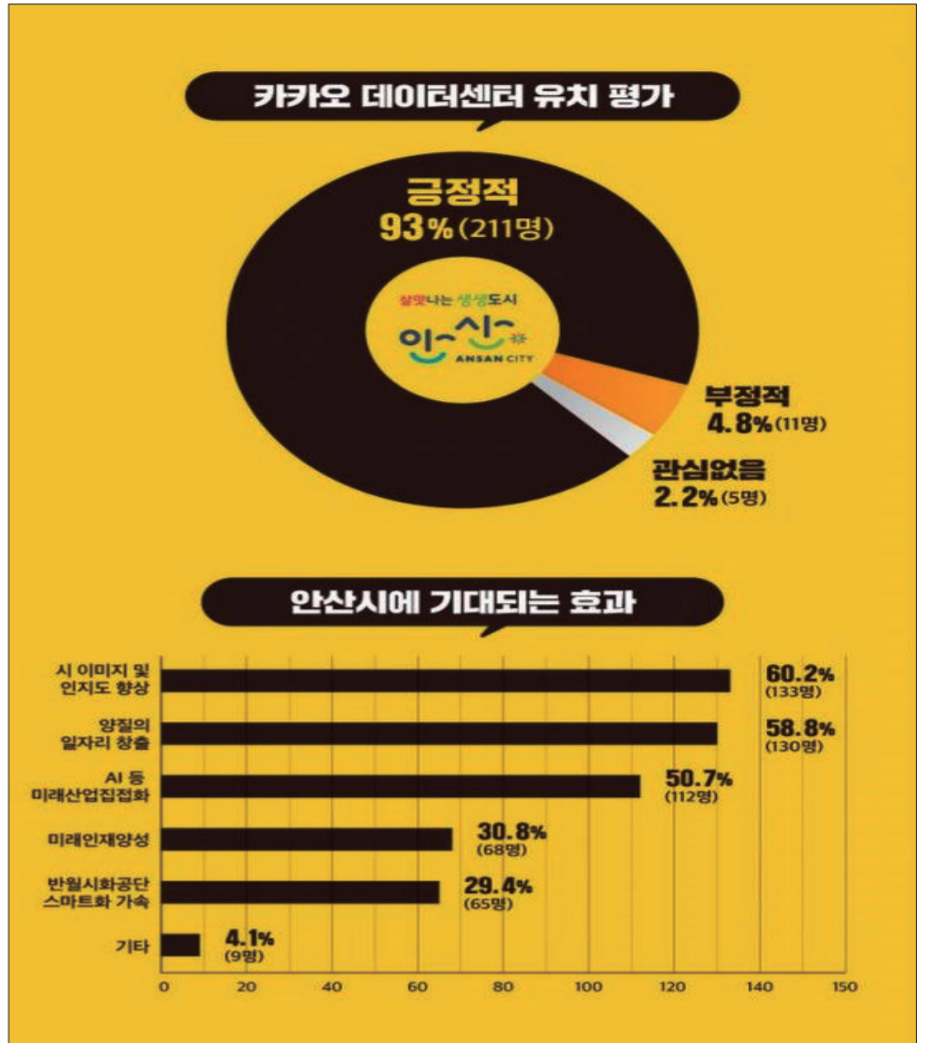
시 이미지·인지도 높아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안산시에 카카오가 4천억원 규모를 투자해 내년 6월 착공하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에 대해 시민 10명 중 9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시민들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시 이미지 및 인지도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227명을 대상으로 카카오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시민인식 및 사업 추진방향 수립을 위해 진행된 설문조사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유치 인지도부 유지에 대한 평가 기대되는 효과(카카오에 기대하는 지역협력사업 등을 묻는 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설문 참가자의 86%는 시 홈페이지, 뉴스,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유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유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낸 응답자는 4.8%에 불과했다.복수 응답으로 진행된 기대되는 효과 문항에서는 '시 이미지 및 인지도 향상'에 60.2%가 응답해 가장 높았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AI 등 미래 산업 집적화 미래인재양성 반월시화산단 스마트화 가속 등이 뒤를 이었다.

시민 대다수는 카카오 데이터센터가 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이어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 조성 외에도(카카오)가 추진했으며 이는 지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카카오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



업혁명 관련 청소년 진로교육 카카오프랫폼을 활용한 안산시 홍보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사업 등을 꼽았다.이처럼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카카오 데이터센터는 6EB 지장이 가능한 하이퍼스케일 규모로 한양대 ERICA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조성되며 올 하반기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 한 뒤 내년 6월 착공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 유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는 시 자체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 8천3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천715억원 직간접 고용 등 일자리 창출효과 2천700명 등이 예상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추진하겠다"며 "카카오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의 혁신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신안대파 김장축제" 대파김치 담가보세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방식으로 진행

신안군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2020 신안대파 김장축제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오는 20일 11:00 ~ 12:00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어려움 시기에도 불구하고 신안군 대파 우수성을 홍보하고 대파 소비확대를 위해 마련한 자리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손쉽게 시청이 가능하도록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주요행사로는 대파김치 500kg 담그기 및 코로나19의료진 전달식과 대파가공업체와 MOU체결하고 1004점 포차를 열어 대파를 활용한 즉석 먹거리 판매 가능한 메뉴 4종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부대행사로 대파가공품 전시, 서숙 가공품 개발 용역 품평회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이날 선보일 코로나 19예방을 위한 1004점 도시락은 최고 품질의 신안 대파를 아낌없이 넣어 만든 갈갈한 신안대파육개장과 대파김치가 주메뉴로 명품 농산물인 신안 시금치나물과 자은 땅콩조림, 전통방식의 말린선인민어건경, 굴무침, 맛의 방주에 등재되며 바다향의 그윽한 고급 식재료인 바위웃으로 만든 바위웃국 등 신안에서 나는 건강한 식재료로 11종 메뉴를 구성했다. 대파김치는 타김치에 비해 원재료의 값이 저렴하고 김장에 소모되는 시간과 절차가 간편해 젊은 층이나 요리에 낯선 사람들에게는 좋은 밑반찬 메뉴이다.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축제는 대파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며 "대파김치가 신안을 대표하는 김치로 자리매김 하고 신안 농특산물로 다양한 가공품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2020 신안대파 김장축제

2020.11.20. (금) 11:00
신안 국민체육센터(암태면)

주요내용

- 신안대파가공업체 협약식
- 신안대파김장행사(500kg 나눔)
- 신안 먹거리 소비촉진 1004포차 운영
- 신안 대파 가공품 전시

부대행사

서숙(조)가공품 개발용역 결과 품평회

유튜브(생중계)에 신안대파김장축제를 검색하세요.
<https://youtu.be/8DjgneRl0mM>

경북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70명 명단공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도 홈페이지, 경북도보, 위택스에 명단공개

경상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470명의 명단을 18일 오전 9시부터 경상북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전국 동시 실시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2741명이

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 436명에 176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4명에 11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71명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3천만원~5천만원이 71명, 5천만원~1억원 60명, 1억원 이상은 34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7명으로 3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 53명, 건설·건축업 49명, 도·소매업 47명 등의 순이었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95명, 담세력 부족 94명, 사업부진 34명, 기타 13명 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규모별로는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기타업종이 17명, 체납 사

유별로는 담세력 부족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1월 5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 중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48명이 총 31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됐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

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충 상담, 분할납부 유도 등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몽호기자

곡성군, 코로나19 방역 관리시설 특별점검 실시

11월 7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사항 집중 점검

곡성군이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방역 관리시설들의 방역수칙 이행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 11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에 대한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곡성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인접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특별 점검 대상시설은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23종 중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12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상점·마트, 학원, 실내 체육시설)이다.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 당일 구체적인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초기인 것을 감안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고 점검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및 관리, 운영자 방역수칙 준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청취한다. 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담양군 불법 광고물 '0', 인터넷 현수막 게시대 개설

군정 홍보, 사회적 기업 등 인터넷에 게시해 수요 분산

담양군이 도시경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 광고물 없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대 시범 사업을 위한 수요 조사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듯이 현수막 역시 지정된 곳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업체 간의 경쟁으로 지정 게시대를 사용하기 위한 대기일수가 길어짐에 따라 원하는 위치·날짜에 게시가 어려워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도시미관에 대한 인식부족 및 광고업자의 신고 소홀로 인해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 대상이기에, 최종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광고주가 떠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담양군에서는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전남도와 협력해 군 홈페이지 내 인터넷 게시대 배너를 설치해 인터넷 현수막을 게시할 방침이다. 인터넷 현수막의 내용은 사행성, 청소년 유해성을 제외한 군정 홍보, 소상공인 및 청년 사업자 지원 정책, 사회적 기업, 청년 사업가 등을 우선으로 구성해 수요를 분산하고자 한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주들이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허가·신고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옥외 지정 게시대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홍보할 수 있도록 인터넷 게시대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창원시, 부동산 시장 점검 및 단속 실시



창원시는 17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창원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시장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1억미만의 물건들 중 재건축, 재개발 기도에 따른 가파른 집값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재건축, 재개발 인근을 대상으로 집값담합, 허위매물 광고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다주택 취득자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거짓신고 의심자나 판별중여 등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세무서로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집값담합, 허위매물 광고 등 관련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위법행위별 과태료 부과분도 병행한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투입,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관련 홍보리플렛 제작·홍보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몽호기자

울진군, 겨울철 상수도시설 동파사고 예방 총력

11월 27일까지 주요 수도시설물 사전점검

울진군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 “2020년 겨울철 상수도시설 동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 27일까지 동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겨울철 상수도 재난발생시 긴급복구 및 대응을 위해 맑은물사업소장을 상황반장으로 동파예방 및 홍보반, 긴급복구 및 급수지원반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상수도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주요 수도시설물 사전점검을 이달 27일까지 실시한다. 순병수 맑은물사업소장은 “겨울철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에 헛웃 등을 채우고 보온해야 하며 주민 스스로 동파 예방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며 “상수도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수도시설물을 집중관리하고 사고 발생시 긴급복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대구 넘어 마크써밋

양주시, 농촌형 알코올중독관리사업 '온'마을 프로젝트 감사이벤트 실시

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농촌지역 알코올중독 예방을 위해 은현면 하패1리 마을회관에 설치한 타일벽화와 트리아트 작품을 활용, 감사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농촌형 알코올중독관리사업 '온'마을 프로젝트'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알코올중독에 따른 질환 등 피해를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했다. 은현면 하패1리 마을회관에 조성한 타일벽화와 트리아트 작품은 읍주 피해예방과 시민건강 보호 등 절주 분위기를 조성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양주시민은 누구나 타일벽화와 트리아트 작품에서 인증샷을 촬영해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동의 후 사진을 올리면 된다.

이후 추첨을 통해 총 6명에게 포토제닉상을 수여하며 당첨자는 12월 1일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한편 양주시는 2020년 경기도 알코올중독관리사업 공모에서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 지역보건기관과 마을공동체가 협력해 건전한 읍주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농촌형 알코올중독관리사업 '온'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기관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대상지는 은현면 하패1리로 알코올중독 위험 연령군인 중장년층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높은 주민 참여도와 관심도를 반영해 선정했다.

센터는 지난 8월 하패1리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우편을 통해 읍주실태 설문을 진행하는 등 전주 조사를 마쳤다. 이후 총 12명의 절주마을 리더를 위촉하고 타일벽화, 트리아트 등 절주 인증 포토존을 설치,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절주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고위험 등록관리, 가족지원, 지역사회자원 연계 서비스 등을 추진, 지역 내 중증 알코올 중독자를 조기 발견하고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알코올중독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이고 중증 알코올 중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서비스 등을 추진, 지역 내 중증 알코올 중독자를 조기 발견하고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알코올중독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이고 중증 알코올 중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례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다양한 중독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알코올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절주문화 확산을 위해 인증샷 이벤트를 마련한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광명시, 그린뉴딜 추진현안 점검하다

지역에너지 전문가·시민과 함께 광명시 지역에너지전환 모습 그려

광명시는 지난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1년 기후에너지와 주요현안사업과 광명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발전 방안 토의를 위해 광명시 지역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광명시 지역에너지위원회는 광명시 에너지기본조례 13조에 따라 부서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에너지관련 기업, 공공기관 관계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에너지위원회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했으며 광명시 지역에너지 정책의 개발 및 평가, 민간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생산 방안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는 그린뉴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에너지부의 주요현안 사항 보고와 광명형 그린뉴딜 추

진의 재정적 기반이 될 광명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의견과 논의, 에너지시책 견의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광명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 기금의 용도의 명확화, 수요자 맞춤형 이용제도, 그린뉴딜 추진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확대 등 발전 방안을 제안했으며 광명시는 이를 조례에 적극 반영해 한편 기후위기 극복 조례에 적극 반영해 한편 기후위기 극복 그린뉴딜을 발표한 후,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기후에너지센터 설립, 시민햇빛발전소 운영, 태양광 주택 지원,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교육, 강사양성교육, 시민참여형 에너지 공동체 형성 및 도심 속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지역 에너지 전환 추진 등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광명형 뉴딜 통합 용역을 추진해 그린뉴딜 정책,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체계를 구체화해 그린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순희.최정부기자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등 산하기관 위탁 기간제 근로자 제로화 선언

산하기관 위탁 3개 시설의 기간제 근로자, 평가 거쳐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고양시는 산하기관 위탁시설 3곳의 기간제 근로자를 평가를 통해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전환 대상자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양어린이박물관과 고양시 생활문화센터, 고양영상미디어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과한 사람이다. 용역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 세 곳은 정부 또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건립된 시설로 고양시 산하기관인 고양문화재단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각각 운영을 위탁한 이후 지금까지 1~3년 단위로 꾸준히 재위탁을 해왔다.

특히 이들 시설에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기관 내 다른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평가·면접 등의 공개채용 시험을 거쳐 입사했고 대부분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난이도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설 운영 자체가 해당 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수탁 업무라는 이유로 그동안 위탁기간에 맞춰 2년 미만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3곳의 경우 앞으로도 지속 운영될 시민 편의시설이라는 점, 그리고 2년 단위로 고용과 퇴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역시 고용불안으로 근로의지가 약화될 소지가 높다는 등의 문제로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



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양시가 적극 행정 의지를 발휘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것. 고양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들 세 곳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내년부터 고양시 산하기관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간제 근로자는 각 기관의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평가·면접 등 정식 채용 절차를 실시하는 한편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각 기관에서 '전환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

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직급과 보수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로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가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 존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단순히 직위 전환을 넘어, 민간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할 공공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걷어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밝혔다.

김영근기자

서구, 석남완충녹지 별칭 공모 투표 진행

두구두구두구~ 석남완충녹지의 별칭은?

인천 서구는 구민 속원사업인 석남완충녹지의 상징성을 담아낼 '별칭'을 구민의 손으로 직접 정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석남완충녹지 별칭 공모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대상은 지난 공모를 통해 접수된 44개 응모작 중 서구 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 별칭으로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1회 투표할 수 있다. 석남녹지는 석남동과 신

현동 일원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자리해 있으며 1970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당시만 해도 공장과 고물상 등이 난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구가 지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석남녹지를 조성함으로써 경관적, 환경적 측면에서 도심 분위기와 정주 여건을 현저히 개선해 서구와 인천을 대표하는 도시의 절대적인 긍정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지막 구간은 서구가 산림청 및 인천시와 함께 추진 중인 '도시바람길숲'으로 도심 내 바람을 통하게 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열섬을 줄이

는 녹색 공간이다. 내년 말 '도심바람길숲' 준공을 통해 석남녹지 전체사업이 모두 마무리된다. 이에 서구는 오랜 시간 구민들과 함께한 석남녹지의 특별함과 상징성을 기념하고자 별칭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별칭 투표에는 지역 제한 없이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특색있고 의미 있는 별칭이 선정되길 바란다"며 "많은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중기자

안성시 원곡면, '원곡면 청렴 동영상 제작' 큰 호응



안성시 원곡면은 활기차고 신나는 업무 분위기 쇄신 및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해 '원곡면 청렴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18일 밝혔으며 안성시 공직자들

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원곡면은 공직자와 시민들이 청렴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해 청렴 홍보에 나섰다. 동영상 내용에는 원곡면이 한해 다양하게 추진한 청렴활동들이 포함됐다. 원곡면 청렴송을 배경음악으로 제작한 청렴 동영상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총 57장의 청렴활동 사진을 선정하고 2분 47초 분량의 영상으로 제작했으며 원곡면 전 직원이 동영상 제작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영상을 통해 청렴화와 제작 과정이나 다양한 청렴 활동을 위한 노력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김건호 원곡면장은 "청렴 동영상 제작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 제고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중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발행시기 : '20.9.1.부터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관내 농협 방문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직장인 소득공제 30%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339-8822

서울시, 코로나 해법 '도시전환'에서 모색. 25.~27. 서울혁신주간 시흥시 희망마을만들기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비대면 토크쇼

2012년 공유 도시 선언후 2020년 '서울 제안'으로 다시한번 공유도시 운동. 글로벌 연대 이끌어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도시전환, 함께 만드는 혁신의 물결'을 주제로 '2020 서울혁신주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전세계를 멈춰 세운 지금, 성장 중심 사회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으로 '도시전환'을 제시하고 시민, 기업 및 국내외 지방정부 및 도시전환 전문가가 모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그간 미래혁신포럼, 전환도시 국제 콘퍼런스, 공유 페스티벌을 각각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사회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사회혁신, 도시전환, 공유 등 다양한 주제들이 온라인에 모여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해 개최하게 됐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도시전환, 함께 만드는 혁신의 물결'이다. 감염병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등은 인간의 삶을 넘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성장을 멈추고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서 '도시전환'에 대한 개념과 사례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논의를 통해 향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도입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혁신 포럼 전환 콘퍼런스 공유도시 포럼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미래혁신 포럼은 '기후 비상사태와 전환을 위한 경제'를 주제로 기조 세션과 '글로벌 사회혁신 생태계'에 남긴 서울의 사회혁신유산'을 주제로 하는 특별 세션이 진행된다. 전환 콘퍼런스는 2050년 서울, 기업과 함께 도시전환을 꿈꾸다, 팬데믹 넘어서기, 지역 순환경제가 답이다. 전환을 향한 집합적 목소리, 세계 도시정부의 전환을 위한 여정 등 총 4개 세션을 진행한다. 공유도시 포럼은 공유도시를 위한 상상과 협력, 코로나 시대 회복력을 높이는 공유도시 전략 등 2개 세션을 통해 국내외 공유도시 운동과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기조 세션' 미래혁신 포럼은 기조 세션과 특별 세션으로 구성된다. 기조 세션 주제는 '기후 비상사태와 전환을 위한 경제'이다. 서정협 권한 대행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코로나 이후 도시 재건의 새로운 경제 모델로 암스테르담 및 세계 기업들이 채택한 도넛 경제의 장안자 케이트 레이워스의 '도넛경제 모델'에 대한 기조 발표와 나니 파주넌의 '핀란드의 순환경제' 사례, 지안루카 살바토리의 '유럽의 사회적 경제' 사례 발표와 기후위기 및 감염병 등 전

구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별 세션' 주제는 '글로벌 사회혁신 생태계에 남긴 서울의 사회혁신유산'이다. 2016년부터 사회혁신국제재단으로 활동한 제프벌건, 에지오 만지니 등이 참여해 서울의 사회혁신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경험과 인터뷰 등을 통해 발굴한 글로벌 사회혁신 생태계에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우수사례 발표와 향후 사회혁신 선도시인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집단 지성 토론을 진행한다. 전환 콘퍼런스에서는 도시전환의 다양한 실천 주체들의 사례 발표와 참여로 이루어진다. 전환 세션1에서는 도시전환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이야기, 전환 세션2는 지역 순환경제를 통해 공동체의 생태문명적 전환을 꿈꾸는 단체 및 활동가들의 사례, 전환 세션3은 일상의 삶에서 전환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경험 나눔과 선언 발표, 전환 세션4에서는 세계 도시정부의 도시전환 사례를 공유한다. '전환 세션1'은 도시전환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 건축 폐기물까지 재활용하려고 노력하는 프랑스 기업 '바카시아' 대표인 루실하몽의 발표와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것을 넘어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파타고니아, 한살림 등 다양한 국내 기업들의 실천 사례들을 공유하고 '2050 서울, 기업과 함께 도시전환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전환 세션2'는 위기 상황 속에서 공동체의 전환 사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본 세션에서는 '팬데믹 넘어서기, 지역순환 경제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석유나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주도적으로 경제 순환을 이끌어낸 영국의 전환마을 '토틀네스' 사례발표와 지역 순환경제를 위한 협력체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환 세션3'은 서울혁신주간 사전 캠페인 '시민실천 프로젝트-내일을 위한 전환, 일상실천 21'의 성과와 확산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삶을 디자인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1일간 일상에서 실천하는 사례를 공유한다. 일상에서 전환을 실천하는 배우 박진희씨의 진행으로 개인의 실천이 어떻게 시스템 전환과 연결되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나누는 '일상을 바꾸는 용기 모임' 토크쇼를 진행한다. 서울혁신주간 사전 행사인 '내일을 위한 전환, 일상실천 21' 프로젝트는 시민 1,775명이 참여해 의식주와 공동체, 자원순환,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전환을 실험하며 활동하고 있는 8개 단체와 채식, 과대 포장제 반납, 플라스틱 안쓰기, 일상 속 기후변화 관심 갖기 등을 21일간 실천했다. '전환

세션4'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이동이 막힌 상황에서 도시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서울시의 '생태문명 전환도시 공동 선언' 이후 실천적 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다른 도시는 어떤 급진적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지 '세계 도시정부의 전환을 위한 여정'을 주제로 파리의 15분 도시, 암스테르담의 도넛 경제, 헬싱키, 몬트리올, 중국 심천, 서울의 도봉구까지 도시들의 다양한 정책 실험과 경험담이 이어진다. '공유 세션1' 공유도시 포럼에서는 국내외 공유도시 운동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토론 및 실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공유도시를 위한 상상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션1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문화 예술 및 돌봄 등의 영역에서 위기를 시민 스스로 극복해 온 사례를 발표하고 제한적 조치로 인한 공공 서비스 방식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공유 세션2'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 회복력을 높이는 공유도시 전략'이다. 그동안 공유도시 운동을 함께 해 온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웨덴 등이 코로나 이후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오고 있는지 사례를 발표하며 향후 세계 공유도시의 원칙과 방향을 새롭게 가다듬기 위한 '서울의 제안'도 발표한다.

또한 공유 분야의 글로벌 연구자인 미셸 바우웬스, 옥사나 몬트, 마요 푸스터 등이 토론에 참여해 공유도시의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서울혁신주간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시청 화상회의 전용 스튜디오인 '서울온'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행사 누리집을 통해 주요 발표자, 세션별 세부 시간표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사전 등록 또는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세션의 유튜브 시청 인증 이벤트도 진행하니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행사기간 동안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seoulcityofficial>)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명의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 온 시스템을 돌아보고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며 "전환의 주제인 세계 각국의 정부, 기업, 시민단체, 학계와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경험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같이 나눠요 #시흥시희망마을만들기' 성황리에 종료

시흥시는 시민 랜선 토크쇼 '같이 나눠요 #시흥시희망마을만들기'가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시흥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했다. 시민 랜선 토크쇼 '같이 나눠요 #시흥시희망마을만들기'에서는 '시흥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시흥시의 슬로건처럼, 시민의 의견을 기반으로 시흥시 희망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를 진행하기 앞서 시흥시 SNS, 시흥시 희망마을만들기 SNS를 통해 행사 홍보 및 사전신청 안내했다. 사전신청한 50명에게는 행사 당일 유튜브 생중계 링크를 문자 발송했다. 온라인 참여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의 의견도 담기 위해 지난 10월에는 마을 권역별 네트워킹을 통해 마을만들기에 대한 의견과 궁금한 사항을 사전조사하기도 했다.

이날 토크쇼는 사회자와 5명의



패널이 마을공동체 사례, 사회적 가치, 앞으로의 과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실시간으로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또한, 전국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누구나 행사에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흥시 희망마을만들기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에 대한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주민, 활동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

람들과 시흥시 희망마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크쇼를 마련했다"며 "특히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시흥시민 뿐만 아니라 타 시군까지 참여해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랜선토크쇼를 기반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흥시 희망마을만들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다같이 돌아 시장 한바퀴" 성북구 전통시장 온라인 홍보 공모전 개최

성북구, 11.19.부터 12.7.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홍보 공모전 개최

서울 성북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성북구

전통시장 온라인 홍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전통시장 알리기'를 주제로 해 성북구에 있는 전통시장 6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된다.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분야는 사진과 블로그 두 가지 분야로 1인당 3점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사진은 자유주제로 진행되며 블로그는 네가지 주제로 공모자가 선택해 작성하면 된다. 취지에 맞게 공모자는 본인의 SNS에 '#성북구', '#성북구명소'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 후 www.성북시장이벤트.com에서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성북구는 접수된 작품 중 사진 분야 66명, 블로그 분야 7명을 선정해 사진은 최대 50만원, 블로그는 최대 8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등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쳐있는 일상 속에 활기를 불어넣길 바라며 구민들이 각자의 개성대로 성북구 전통시장의 맛과 멋을 마음껏 홍보해주시길 바란다"며 "또한 공모전 참여를 위해 시장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성북구 시장에 가면" 상품권이 대박!

다같이 돌아 시장 한바퀴!

오늘은 성북구 시장에서 사교, 먹고, 놀자!
오늘은 대형마트 대신 시장으로!
오늘은 학교 및 직장 대신 시장 포차로!
오늘은 성북구 시장으로 가자!

진행기간: 2020. 11. 19 (목) ~ 12.07 (토) 18:00까지

공모분야:
1. 사진: 사진 또는 사진을 활용한 창작그림을 SNS에 업로드
-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등
2. 블로그: SNS에 업로드한 창작사진을 블로그에 게시

대상: 성북구 전통시장 6개소 (신설동, 동소문동, 동소문1동, 동소문2동, 동소문3동, 동소문4동)

대상별 상금:
1. 사진: 1인당 50만원 (총 66명)
2. 블로그: 1인당 80만원 (총 7명)

신청방법: 1. www.성북시장이벤트.com에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
2. 공모전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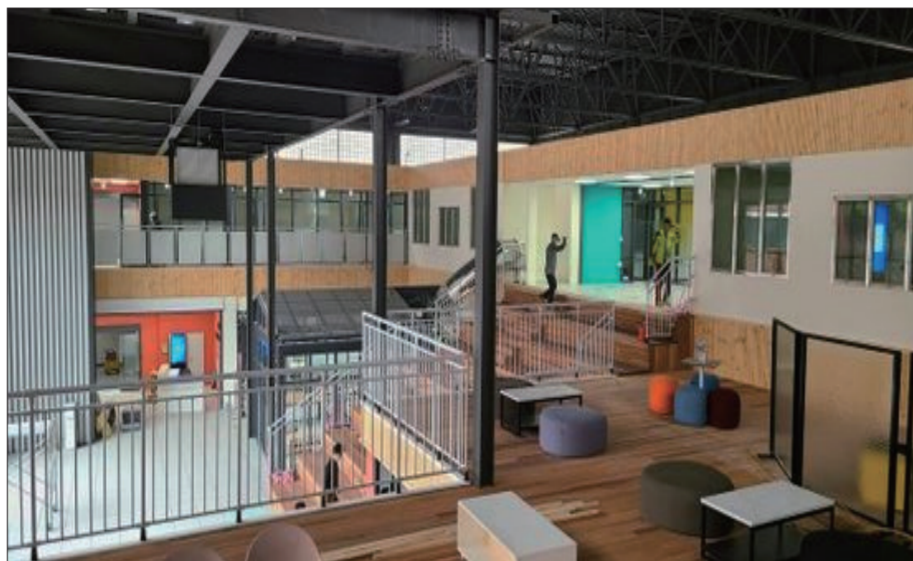
신청기간: 2020. 11. 19 (목) ~ 12.07 (토) 18:00까지

문의: 성북구청 문화체육관광과 (02) 2261-9972-4



경남 청년의 상상력을 창작·창업으로 연결할 공간 탄생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전시장 내 '경남콘텐츠코리아랩, 웹툰캠퍼스' 완공



경남 청년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창작·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콘텐츠 창업성공 공간이 될 '경남콘텐츠코리아랩, 웹툰캠퍼스'가 완공됐다. '경남콘텐츠코리아랩'은 콘텐츠 분야의 예비·초기창업자와 청년을 위한 창작놀이터이며 '경남웹툰캠퍼스'는 웹툰 전문작가의 상상력이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한자리 서비스 콘텐츠 지원 시설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전시장에 자리 잡은 '경남콘텐츠코리아랩, 웹툰캠퍼스'는 2019년 3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38억 규모로 조성됐다.

총 연면적 1957.4㎡ 규모로 창작, 입주, 네트워크, 지원 공간으로 구성됐다. 1층은 디지털작업실, 음향·영상편집실, 스튜디오, 오픈오피스, 회의실, 기업입주실, 독서실, 콘텐츠제작실, 웹툰교육실, 상상 미끄럼틀 등으로 2층은 웹툰작가실 18개, 기업 4개, 회의실,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전문가와 협력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간은 개방해 모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현재는 영상콘텐츠제작, 웹툰, 웹

소설, 3차원 만화영화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콘텐츠 기업 3개소와 웹툰작가 19명이 입주한 상태다. '경남콘텐츠코리아랩'은 예비·초기창업자, 청년 등에게 '콘텐츠 창작·창업 흙미 부여에서부터 초기창업자의 사업화 연계지원, 성장단계까지' 지원에 감해 소재 경남콘텐츠 기업지원센터에서 크게 성장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남웹툰캠퍼스'는 국내 웹툰 작가 등에게 창작지원, 상담, 육성, 연결망 지원 등 입주 작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며 기존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공간·

송인용/기자

경남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위한 2020 항노화산업박람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강한 헬스케어, 다양한 항노화 프로그램 마련

본 권 소지시 KF94 마스크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 1인 1일 1개 (방화형 교환)

일시	11월 19일(목) - 21일(토)
장소	창원컨벤션센터 제1, 2전시장
개그맨 이은석	2020.11.19(목) 14:00
임경숙 교수	2020.11.20(금) 13:00
오한진 박사	2020.11.21(토) 13:00

'항노화 웰니스·웰에이징 포럼'은 항노화 웰에이징 건강관리 항노화 웰니스 건강관리 항노화 웰스케어 건강관리로 구분해 3일간 진행되며 개그맨 이은석, 수필대 임경숙 교수, 을지대 오한진 박사의 강연으로 이어진다 그 밖에도 항노화산업의 확산을 위해 각 업체별 항노화제품 및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전 연령 항노화 케어를 위해 항노화웰니스홍보관 및 뷰티체험, 헬스케어

체험, 질병예방캠페인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이제철 도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전시회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우리 도가 미래 50년 신성장동력으로 항노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 개최로 국내 항노화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류석/대기자

"몸에 좋은 함양 산삼 옛 드시고 수능 대박 나세요"

17일 함양 개평한옥마을, 수능 합격 기원 '산삼 옛' 제작·나눔 행사 개최

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자필로 남겼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고택음약회, 중가 문화체험 등의 개평 한옥마을 축제를 대신해 이뤄졌으며 이와 함께 마을 간담회 겸 잔치를 벌여 주민들 간 화합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어우러졌다.백상현 이장은 "우리 마을 주민 모두가 산삼 옛을 만들어 수험생들의 건강과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았다"며 "우리 지역 학생 모두가 수능 대박이 나서 우리 함양을 빛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행사에 함께한 서준수 함양군수는 "뜻깊은 행사를 준비한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었을 수험생들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노력으로 수능을 잘 치를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한다"고 말했다.또한

참석한 군 관계자는 "함양 산삼을 기며 수험생의 건강까지 도모할 수 있는 특별한 옛이 탄생되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 산삼 옛 뿐만 아니라 산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콘텐츠 개발을 통해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함께 하는 '인생 삼락 갈맷길 걷기'

걷기로 스트레스도 날리고 엑스포 유치 기원도 함께해요

부산시는 오는 28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삼락생태공원 일원에서 갈맷길을 걸으며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인생 삼락 갈맷길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걷고싶은부산,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며 28일 오후 1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 집결과 순차 출발을 적용함에 따라 실제로 걷는 시간은 2시간 정도다.부산시 갈맷길 6코스 중 일부 구간인 삼락생태공원 일대를 걸으며 삶의 활력과 건강 증진 스트레스 타파와 코로나 우울증 극복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응원 소원나무 만들기, OX 퀴즈, 행운의 풀렛 이벤트 등 인생의 삼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행사에는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착순 200명만 신청을 받는다.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걷고싶은부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11월 20일까지이다.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활력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했으며 방역을 최대한 강화해 진행할 것"이라며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래세대를 위한 선물인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에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허성무 창원시장, 시내버스에 대한 '허심탄술'한 논의

시내버스 8개사 노조 지부장과 만나 준공영제 시행 등 시내버스 현안 논의



허성무 창원시장은 최일선에서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준공영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관내 시내버스 8개사의 노동조합 지부장과 오찬을 함께했다.이날 오찬에서는 준공영제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력 우수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운영 노선 및 배차 간격 조정 등 시내버스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8개사 노조 지부장들은 먼저 한목소리로 준공영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으며 노조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 역시 다짐했다.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 개선과 노선 개편 등에 대한 운전기사들의 건의사항도 대표로 전달했다.허성무 시장은

"시민들과 제일 가까이 만나는 버스기사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노조의 '차별형 준공영제'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으며 준공영제의 시행 협의 체결을 위해 노조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노조협의회 이

경룡 의장 역시 "준공영제 시행은 창원시민과 시내버스 노조 모두 바라는 것"이라며 "준공영제 시행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되면 우리 기사들은 시민들에게 서비스 개선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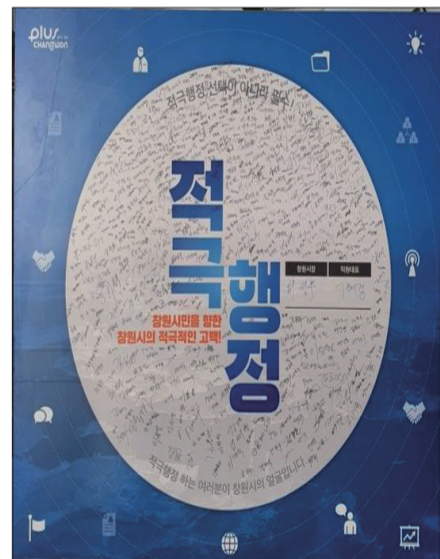
정몽호/기자

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규정' 시행

창원시는 적극행정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규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거나 고문변호사를 추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 마련이 감사나 처벌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연하고 능동적인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을 포상하고 전직업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조성환 법무담당관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편의 증진과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몽호/기자



부산시, '2020 사회적경제 온라인 박람회·한마당' 개최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대대인 홍보에 나선다.부산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20 부산시 사회적경제 박람회'와 '2020년 부산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온라인 플랫폼인 '부산시사회적경제온라인박람회.kr'과 '부산시사회적경제한마당.kr'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부산시는 두 행사를 같은 기간에 개최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사회적경제홍보관 우수기업 문화공연관 공공구매관 가상체험관 유관기관홍보관 상품판매관 등 온라인 부스로 구성된다. 이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 서포터즈 영상 출판작 소개, 기업과 공공기관의 채팅 구매 상담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집 꾸미기

가상체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도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비대면 행사인 만큼, 온라인 부스를 통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개회사와 사회적경제기업협회 대표들의 축하 영상 우수기업 시상식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기업 공연 영상 등을 소개해 개막식 행사를 대체한다.사회적경제 한마당은 매년 10월, 광복로 일원에서 부산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와 제품을 판매하는 행사이다.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전환해 '부산시사회적경제한마당.kr'에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부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하며 식품·생활용품·교육/체험·디자인·공연/행사·사무용품·청소/방역 등 200여 개의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구매 시에는 무료배송과 사은품 증정 행사도 진행된다.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를 가까이서 접하는 계기이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며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산청군 2030 중장기 미래비전 수립 '첫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산청군이 경제활동 인구증가와 기존산업-신산업 간 조화 등 균형 발전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군은 19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각 실국과장과 실무추진단, 용역수행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30 산청비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저출산과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국정과제 및 경남도 발전계획과 연계한 발전전략 수립

저출산·고령화·포스트 코로나·한국형 뉴딜 등 차별화된 프로젝트 발굴 지역 특성·잠재력·트렌드 등을 고려한 비전 및 발전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용역의 기본방향과 과업 추진 전략, 추진 로드맵 등 계획을 설명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원은 산청군의 2030년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인간다운 삶·품격있고 건강한 정주여건 조성 농산촌·임업 가치 제고로 고부가가치 실현 한방 향노화 관련 제조업·관광산업 활성화로 성장 사다리 구축 전략·산업·인구·공간 연계 강화로 산청군 성장 구현 등을 손꼽았다.

산청군은 앞으로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실무추진단과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예정이다.

정병주 기획조정실장은 "최대 강점인 한방 향노화산업의 성장 촉진과 지리산 등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부가가치 산업 발굴을 바탕으로 귀농귀촌인구 유입과 경제활동인구 유출 방지가 산청군 발전의 핵심"이라며 "우리 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이 발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인용/기자

제8회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개최

11월 20일-22일까지 경주 월정교 잔디광장서 열려, 다채로운 공연, 전시회 등으로 꾸며져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주관하고 BBS불교방송이 주최하는 '제8회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경주 월정교 잔디광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에밀레전은 현존하는 종 가운데 최고의 소리와 아름다운 모양을 갖춘 '성덕대왕신종'의 가치와 정신을 기리고 종을 매개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우리 소리 문화의 열과 혼을 담아 경주의 전통문화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에밀레전은 코로나19에 지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특색 있는 문화축제를 제공하고 활동이 위축됐던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기획됐다.

개막식은 21일 오후 1시부터 월정교 특설무대에서 경주문화원 풍물패의 길놀이로 시작되며, 에밀레 축하음악회로 진행되며 불교방송만의 특화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20일 첫날은 가람예술단과 국악인 정순임, 대금연주자 이상애와 함께하는 에밀레 국악한마당이 펼쳐지며 21일에는 영남국악관현악단과 오정해, 박서진,



한이재 등이 출연하는 축하음악회, 마지막 날에는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인 랜선 OX퀴즈대회와 경주국악협회와 천년국악예술단, 경주색소폰동호회가 참여하는 에밀레 소리마당 등으로 꾸며져 사흘간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다양한 전시행사도 마련된다. 신라시대 종 6구를 비롯해 세계의 종을 전시하는 에밀레 박물관은 성덕대왕신종 문양·명문 해석과 소리의 과학성, 관련 설화 영상관, 시대별·나라별 종의 비교, 종 주조과정 등 각종 전시물과 시청각 자료관

으로 꾸며지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대종, 범고 목어, 운판 등 불교 사물 치기와 신라 의상대사가 만든 화엄 일승법계도를 구현해 직접 걸어보며 체험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신라 음식과 신라 옷, 한지공예와 전통차, 서예, 도자기 등 30여 개의 전시부스가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에밀레전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일일 관람객 제한 및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한반식/기자

영천경마공원 사업승인, 영천의 백년대계를 세우다

영천경마공원 사업승인 기념행사 개최

영천시는 18일 영천경마공원 조성부지 일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비롯한 이만희 국회의원,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도·시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경마공원 사업승인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지난 9일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영천경마공원의 최종 승인고시를 축하하고 정상궤도에 오른 영천경마공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영천시는 2009년 12월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한국마사회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토지보상협의, 도로 인프라구축,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도 탄탄히 다져왔다.

영천시는 지난 2019년 7월에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한 이후 주민설명회, 지역개발사업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경관·재해·교통·환경 및 농지·산지 전용협의를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청, 경북도 등 48개 관계기관과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11년 만에 지역개발 사업 승인이라는 결과를 이루어냈다.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은 영천시 금호읍 성

천·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대에 44만평 규모의 부지에 조성되며 주요 시설로는 경주로 관람대, 마사, 동물병원 등 경마 필수 시설과 함께 루지존, 힐링사마리, 수변공원, 야생화정원, 피크닉가든, 가족캠핑장 등 지역민의 힐링을 위한 공간과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명소가 될 것이다. 최기문 시장은 "농식품부·국회·경상북도·한국마사회등과 긴밀히 협력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인 영천경마공원을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경마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고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영천경마공원 조성으로 큰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반식/기자

영천시, 시장님과 함께하는 여성기업인 간담회 개최

영천시,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기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방안 논의

영천시는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영천지회가 회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님과 함께하는 여성기업인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날 장학금 3천3백만원을 영천시장학회에 기탁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기업인들의 현장에서 느낀 고충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영천지회는 2007년 4월 12일 결성돼 현재 29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억 4천8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영천시장학회에 기탁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불우이웃돕기, 도서기증, 자정면 봉사단체인 청춘배달가족봉사단 활동 등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 실천을 통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순남 영천지회장은 "여성기업인 간 소통과 긴밀한 유대를 통해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영천지회 발

전에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인구증가를 위해 여성기업인들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최기문 시장은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영난 해소와 기업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호/기자



영양군, 제291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영양군은 11월 17일 오후 2시에 영양군청, 일월면, 영양119안전센터, 생활안전지킴이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1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일월면사무소 일원에서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일월면 주민 및 등산객을 대상으로 불법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금지,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개방된 등산로 이용 등 각종 산불예방 수칙을 홍보했다. 11월은 건

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특히 농산물 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과 단풍 구경을 위한 행락객들로 산불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오도장 영양군수는 "산불예방을 위한 일월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영양군에서 11월 한 달 동안 2차례 산불이 발생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모든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

남원시,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개최

공공디자인 정책과 진흥방향의 이해로 디자인 역량을 강화

남원시가 공무원 공공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디자인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남원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반면 평소 공공분야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과 공공디자인 진흥 방향의 이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을 깨닫고 직원의 공공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디자인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도시디자인 아카데미는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13일 2회로 나누어 남원예촌 사랑마루에서 진행했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최성호 교수, 강성중 연구소장, 다더어소시에이츠 이재승 차장이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교육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오전에 진행된 교육은 '공공디자인

정책과 진흥방향'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낮은 디자인 교육 수준에서 비롯된 도시의 문화적 매력 대한 고려가 없는 버스 정류장,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가로 판매시설 등의 디자인적 문제점을 제기하며 일상에서 체감되는 디자인을 1차 목표로 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오후에 이어진 교육은 '공공디자인과 지역발전',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및 벤치마킹'이다.

도시에 적용되는 디자인의 기능, 주민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등 지역발전을 위한 디자인과 공공디자인 우수사례를 통한 도시의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했다.교육 후에는 설문 조사를 통해 공공디자인 아카데미의 전반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교육생은 기념사진 촬영을 마치고 종료했다.

앞으로 남원시는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진도군, 21일 윤림아트마켓 개최

오전 11시부터 윤림산방에서 수공예품 판매, 다양한 체험과 공연

진도군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독특한 수공예품 판매와 다채로운 공연, 체험 등의 윤림아트마켓을 오는 21일 윤림산방에서 개최한다.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예정인 '윤림아트마켓'은 진도에서 생활하는 예술가들이 참여해 본인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과 미술품을 판매한다.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과 공연을 통해 깊어가는 가을 윤림산방을 찾아온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재미있고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림아트마켓에 참여하는 품목은 생활도자기, 양초 공예품, 디퓨저와 생활한복, 전통 소품은 물론 다육식물 화분, 엽서 노트 등 웹툰 작품이다.또 진도군 아트상품, 라탄 공예품, 뜨개소품, 진도올금 비누를 비롯 도자기, 천연염색, 채색

강양호기자



전북의 가야역사,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어지다

전북 가야 역사 규명과 정립을 위한 온라인 생중계 학술대회

전북의 국가사적 제552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2022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앞두고 전북 가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진다.전북도는 2017년부터 시작된 전북의 가야 관련 문헌 연구와 유적 발굴 성과를 종합 정리하고 전북지역 가야의 역사적 위상을 정립하고자 오는 20일 호남고고학회와 함께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가야사 복원은 영호남 화합을 목적으로 한 국정과제로 떠오르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전북도는 가야 유적 정비 및 지속적인 발굴 사업을 통해 전북지역의 가야사 실체를 밝히는 데 힘쓰고 있다.

전북의 가야 문화권은 남원과 장수를 중심으로 동부권 7개 시군을 아우르며 이 지역 일대에서 발견된 봉수와 고분, 제철유적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특히 전북도는 지난 9월 전북의 가야 유적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보로 선정되어 내년 유네스코의 현지 실사 방문을

거쳐 내후년인 2022년 최종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학술대회는 전북지역 가야 고분과 봉화, 제철유적 등에 관한 9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되며 최완규 교수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다.최완규 교수는 전북지역 마한·백제와 가야의 역학관계를, 전상학 연구원은 무덤을 통해 전북가야의 독자성과 역동성을 논하고 조명일 연구원은 봉화의 축조기법과 구조에 관해, 유영춘 연구원은 철제 무구를 바탕으로 전북 가야의 대외 교류에 관해 발표한다.이어 김재홍, 이도학 교수는 각각 문헌 속 가야의 소극으로 알려진 기문, 반파국을, 한수영 박사는 전북지역 철기문

화의 등장과 전개에 대해 고고학적 측면에서 발표한다.또한 곡장근 교수는 제철유적과 그 동향에 관해, 유철 원장이 가야문화유산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더 나아가 좌장 이재운 교수와 또다른 9인의 토론자들이 전북 가야의 성장과 위상을 논의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학술대회가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적 기반을 단단히 하고 전북지역 가야 역사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도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일기자

남원시, 지역특산물 활용 창업 인력 양성교육 수료식 개최

남원시는 지난 16일 국제한식문화재단과 손잡고 추진한 남원 지역 특산물 활용 맞춤형 창업인력 양성사업을 교육 수료생 전원 창업이라는 위대한 성과로 마무리하고 사업에 참여한 교육생의 수료식과 네트워킹을 개최했다.지난 8월부터 11월 초까지 추진한 창업교육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남원 농식품 산업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고 건강 지향적 소비 트렌드와 가정간편식 시장의 고성장에 맞는 예비창업자 창업특화교육으로 성공적인 창업인 육성과 창업을 통한 지

집에 어려움이 많아 교육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으나, 수료생 12명 전원을 창업에 성공시키는 기업을 토해내며 목표대비 120% 성과를 거뒀다.이환주 시장은 "이후에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식품에 대한 다각적 지원과 판로개척, 홍보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며 "오늘 이 시간이 창업앞에 여러분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앞으로 판로개척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참여 수료생은 "이번교육은 귀농 후 평소 배우고 싶었던 내용들이라며 기회를 통한 남원시와 국제한식문화재단에 너무 감사드리고 매 수업시간마다 열심히 참석해 배운 것을 토대로 창업에 성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남출기자



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오는 25~28일까지 팔복예술공장서 '2020 전주 디지털 콘텐츠 페어' 개최

VR 등 첨단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하고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전주에서 펼쳐진다.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팔복예술공장 일원에서 '2020 전주 디지털 콘텐츠 페어'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주문화재단이 '기술과 예술의 만남, 지역 융합콘텐츠 산업의 퀀텀점프'라는 주제로 지역 ICT 기업 10개사와 지역 예술작가 10명의 협업을 준비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프라인 전시 온라인 VR 전시관 웹세미나 B2B 상담 및 투자자 컨설팅 등이 있다.오프라인 전시관에서는 미디어아트 체험존과 스마트팜, 관광 등을 주제로 한 VR·AR 콘텐츠, 공연 및 관광 콘셉트의 1인 크리에이터 콘텐츠 등이 선을 보인다.또 시각예술가의 작품 등 다양한 예술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온라인 VR 전시관도 구축했다. 360도 카메라

로 촬영한 오프라인 전시관을 전주 콘텐츠 페어 홈페이지에서 마치 현장에 온 것 같이 관람할 수 있다.콘텐츠 산업의 전문가들과 함께 비대면 트렌드를 알아보는 웹세미나도 열린다.1일차는 '콘텐츠 기업경영'을 주제로 황부영 브랜드임 파트너즈 대표와 추봉길 라이브랩 대표, 류중희 대표가 참여하며 2일차는 '기술x문화, 융합예술'을 주제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장과 송대규, 차유림, 김지훈, 노진아 등 미디어 아티스트 4명의 사례발표 시간도 있다.3일차에는 5G서비스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 전문가 특강이 이어진다.세미나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행사 중계 플랫폼인 이벤터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또 코로나19로 국내·외 전시 참가를 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한 'B2B 화상상담존'이 구축된다.사진에 매칭된 바이어 및 투자사들과 기업 관계자 간 상담회가 26일과 27일 진행된다.진흥원은 코로나19 확



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시관 관람인원을 시간당 최대 30명까지 제한해 입장시킬 예정으로 사전등록은 오는 20일까지 전주콘텐츠페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콘텐츠 산업

마케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술과 예술이 만나, 융합콘텐츠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콘텐츠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전북도,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 운영사업자 공모

전북도가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 운영사업자를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이번 공모는 올해로 기존사업자의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 운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전라북도내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을 추진할 새로운 운영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다.신청 자격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연구기관과 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이며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단체이다.주요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컨설팅 및 평가지원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아동복지교사 교육지원 지역아동센터 조사연구 특성화 시책사업 추진 등이다.운영사업자로 선정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96백만원을 지원받아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을 운영하고 도내 284개소 지역아동센터 아동 7,353명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신청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모계획을 참고해 오는 23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전북도청 여성청소년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운영자 최종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결정되며 선정 결과는 각 기관·단체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김중남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장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도내 아동들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고 건실한 기관·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하은기자

산업을 방지하기 위해 전시관 관람인원을 시간당 최대 30명까지 제한해 입장시킬 예정으로 사전등록은 오는 20일까지 전주콘텐츠페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콘텐츠 산업



김영록지사, “공사출연기관, 도민행복 성과물 내야”

18일 성과보고회, 도민 신뢰받을 근본대책 주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일 2020년 공사·출연기관 성과보고회를 갖고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한 근본 대책과 성과물을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가진 성과보고회에서는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광주전남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기획연구, 전남TP,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녹색에너지연구원, 해상풍력플랫폼 R&D 65억원 및 규제자유특구 65억원 주주 중소기업진흥회, 육성자금 추진 및 101억원 이자 완화 신용보증

재단 ‘코로나피해 극복 총력 지원과 집중호우피해 지원’ 순천·강진의료원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과 타 지역병상 나눔’ 등이다.김지사는 “공사·출연기관 경영평가가 기관 성과 전부를 대변할 순 없지만, 산하 공공기관을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도민에게 보다 신뢰받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근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경영 효율화와 성과달성 등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은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한 성과를 극대화하고 히트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도민의 공감을 얻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도민 제일주의를 실현하자”고 덧붙였다.

김영안기자



강인규나주시장,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력투구

13일 국회 방문, 예산결산위원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나주시가 전국 지자체 간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지는 국회의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라 국가 예산 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13일 기획예산실장 등 예산 실무자들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만나 발품행정을 펼쳤다.

강 시장은 이날 예결위 소속 김원이, 양향자, 김형동, 예결위 소위원회의 서동용, 지역구 국회의원의 신정훈, 서삼석 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사업이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건의 사업은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1-2단계’,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총 4건이다.생활SOC복합센터는 빗가람 혁신도시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어린이를 위한 문화·커뮤니티 시설로 지난 9월 국부조정실 주관 공모사업인 ‘2021년도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나주시는 국비 포함 총 158억원을 투입, 오는 2023년까지 빗가람동383 사유지 1325㎡에 어린이특화 생활SOC복합센터를 건

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신선했던 산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먹거리 상생 푸드마켓’을 비롯해 ‘어린이테마 도서관’, ‘육아지원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농산물체험장’ 등이 건물 2-4층에 들어선다.강 시장은 생활SOC복합화 사업 중 농산물직매장, 육아지원시설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활성화기반조성사업이 정부예산안 대로 확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사업’은 혁신산단 내 나주축산물공판장 준공, 분양 기업 조기 입주 등에 따른 폐수 처리 용량 증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이다.강 시장은 “산단 내 폐수 배출량 증가로 기존 1-1단계 처리용량의 한계에 도달할 예정”이라며 “적정 폐수처리와 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노후화가 진행 중인 나주가축분뇨공공처리장 시설 개선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2003년 최초 가동한 가축분뇨처리장은 2013년 개선공사를 통해 전처리 및 2차 처리공정 등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매년 자체 예산을 투입해 처리장 유지·보수를 시행 중이나 현재 시설로는 고농도 가축분뇨를 처



리에 한계가 있어 정량·진포마을 등 인접 마을 주민들이 악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여기에 이창행복주택, 아델리움 아파트 등 450여세대 규모 공동주택단지 가 오는 2023년 건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처리장 시설 개선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강 시장은 “생활분뇨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은 악취 개선사업이 확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이나 가축분뇨처리장은 미확정된 상황”이라며 “두 사업을 모두 추진해야 악취 저감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된다”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적극 피력했다.강 시장은 이어 전남형 미래성장동력으로 에너지-ICT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에너지-ICT융복

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총 261억원이 투입되는 센터는 혁신산단 부지 1만3264㎡,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에너지산업 관련 중소기업에게 임대형 산업시설 25개소를 오는 2022년 하반기에 제공할 예정이다.강인규 나주시장은 “중앙부처와 국회를 향한 힘 있는 발품 행정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여부를 평가받는 단체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책무”며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은 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핵심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히 대비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신안군, 바다의 위기는 지구의 위기. 바다숲 알리고 살려야

바다숲 보호를 전면에 세운 사례. 전문가에게도 이례적

최근 국가적으로 바다식물일을 지정하고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등 바다생태계 파괴 속도를 늦추기 위한 해양보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바다 생물의 안전한 서식지가 되어주는 ‘바다숲’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상 섬이 가장 많은 신안군에서는 줄어드는 바다숲을 복원·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국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바다숲은 해조, 산호초, 켈프 등으로 이루어진 해저의 녹지를 말하는데, 이곳은 지구 산소의 약 70%를 제공한다.지구 온난화와 해수 오염 등 환경 변화로 해조류의 번식량이 급감하고 그 자리에 하얀 석회 조류가 덮이는 바다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바다숲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바다숲 감소는 해양생물의 생명 활동과 서식지를 파괴하는 물론 어민 소득 감소로도 이어져 물건의 지속과 연장을 위협하는 등 세계적인 환경 문제와 미래의 기후위기를 가리킨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바다 면적이 가장 넓은 신안군에서 제일 먼저

‘바다숲 살리기 2020년 국제 산다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다이’는 남도 전통문화에서 섬 마을이나 갯가 청춘남녀의 놀이문화를 일컫는 단어로 지역성과 상징성을 갖는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각자가 만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과정을 만들어 간다는 데에 주안을 두기 위해 사업의 명칭으로 산다이가 차용됐다.국제 산다이에는 국내·외 디자이너와 예술가가 참여한다.

학계 등의 자문을 수집하고 국제 협력의 폭을 꾸준히 넓히기 위해 문화예술적으로 접근한다.

아직 생소한 용어인 바다숲을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놀이화하는 과정을 앞에 두기 위함이다.

무용·그림·사운드아트·사진 등의 다양한 장르를 활용해 바다숲에 관한 메시지를 담아 제작된 작품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과 공유될 예정이다.우리나라 출신의 김이슬, 박윤산, 박철휘, 오지근, 이권형 x과제, 현지에서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Deborah Lynn Afuang, Sasaki Sujin, Sacha Copland, Randy Richardson의 참여로 그 첫 관문



을 연다.이후 온라인에서 생성된 링크를 통해 지역망과 온라인 네트워크로 확산되고 릴레이 형식으로 워크·순환될 수 있도록, ‘나무의 바다숲 브이로그 만들기’ 유튜브 제작 패키지처럼 시민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 아이템이 제공될 예정이다.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과정이 점차 누적됨에 따라 향후 아카이브 결과물을 생산하고 신안의 섬을 비롯한 세계적인 섬·해양 환경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반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다.2020년 10월,

신안군 관계자와 참여 작가들, 자문위원들의 사전 만남이 있었다.

현재는 바다숲에 관한 리서치와 창작 작업이 진행 중이다.

11월 중에는 신안의 섬으로 현장 답사를 하고 12월에는 참여 작가들의 작품 감상과 공유에 참여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관계자는 향후 소규모 오프라인 행사 개최를 통해 작품 시연 등이 이루어졌다.에 따라 온·오프라인 상에서 캠페인의 일반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기석기자

순천시, 2020년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12월 25일까지 UD거리 내 글로벌 웹툰센터에서 UD 홍보관 운영

순천시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2020년 순천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해 선정된 수상작 35점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11월 17일부터 12월 25일까지 시민로 UD 거리 내 순천 글로벌웹툰센터 1층에서 진행된다.전시회는 이번 UD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함께 UD홍보관 운영을 통해 순천시에서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인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UD 공모전 수상작은 지난 8월 31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공모를 통해 총 112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심사를 통해 대상 1점, 최우수 1점, 우수 2점, 장려 6점, 입선 25점을 선정했다.

대상에는 ‘공감’팀의 ‘동천 위 연꽃향이 퍼지는 연향로’가 피지는 연향로 유니버설디자인 거리 조성’이 선정됐으며 연향로에 위치한 실제 도로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아이디어 적용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최우수상은 ‘조은영’ 씨의 ‘SAFE PARKING LOT’이 선정됐다.

이밖에도 순천시 도심 지역에 위치한 공원을 디자인한 작품을 비롯해 도로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셉테드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선정됐으며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출품작들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는 순천시 관계자의 의견이다.순천시는 대상 1천만원, 최우수 5백만원 등 총 2천9백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UD 홍보관은 ‘모두를 위한 도시이야기,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주제 속에 ‘모두, 그리고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일상 속의 UD 이야기’, ‘당신의 유니버설디자인 경험’이라는 3개의 내용으로 전시공간을 꾸며 UD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웹툰센터 입주 작가가 제작한 UD 웹툰을 통해 보다 쉽고 흥미롭게 UD 개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예정이다.

전시회에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 후 입장할 수 있으며 관람하는 경우에도 일정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UD 붐 조성을 통해 전국 제일의 유니버설디자인 특화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전남도, ‘여성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전라남도가 오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0 전남 여성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성인력에 대한 고용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박람회는 전라남도와 목표·여수·순천·나주시 등 일자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150여개 기업을 모집하고 취업인원 300명을 목표로 추진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박람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이번 온라인 박람회는 구인·구직 및 취업상담, 면접 알선 등 각종 고용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직된 채용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박람회는 인터넷 취업포털인 잡코리아를 통해 참여기업 모집 및 홍보, 기업·구직자간 매칭 등이 이뤄진다.특히 누리집에 전남 권역별 채용관이 마련돼 거주지 인근 채용기업을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채용공고 게시 및 구직자 이력서 등록, 인·적성 검사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김종분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고용 한파가 지속돼 여성 구직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과 구직자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맞춤형 채용정보를 제공할 이번 온라인 박람회에 관심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안기자



음성군, 지역 내 소외계층 위한 김장 나눔손길 잇따라

충북 음성군에서 김장철을 맞아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김장 나눔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음성지구협의회는 18일 감곡리 영산리에 소재한 이혜숙 회장 자택에서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적십자 봉사원들과 북한 이탈 주민들은 김장김치 1000포기를 담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달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혜숙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한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 소통·교류하는 화합의 장이 되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장 나눔 행사는 배추 파종부터 수확, 김장까지 적십자 봉사원들과 북한 이탈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음성군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봉사와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적십자사 봉사회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원남면 새마을회에서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사랑의 김장 나눔 행



사를 가졌다고 전했다. 원남면 새마을회 회원 30여명이 모여 5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관내 30개 마을 경로당과 36가구의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지역 구석구석으로 나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체온 체크와 손 소독, 행사장 사전 방역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 후 진행됐다. 행사를 준비한 안주현 새마을회장은 "울겨울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김치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복순 새마을부녀회장은 "김치를 담글 때 몸이 힘들지만, 우리가 정성껏 담은 김장김치가 추운 겨울 어르신들의 밤상에 올라 작은 위안이 되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하다"며 "지역 어르신들을 정성으로 모시는 모습들이 어린 세대들에게도 귀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충남 잡다한 페스티벌' 인기 고공행진

연택 시대, 취업프로그램부터 화상면접까지...비대면 구인·구직 해소

충남도는 '2020 충남 잡다한 페스티벌'이 신개념 구인·구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페스티벌은 언택트 시대, 취업프로그램부터 화상면접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채용박람회'이다. 페스티벌을 통해 기업 담당자를 만나고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와 충남일자리진흥원에 따르면 페스티벌에 참여한 기업은 총 103개사로 구인인원은 285명으로 집계됐다. 홈페이지 방문자 역시 8200여명에 달하면서 페스티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페스티벌 개최에 앞서 일자리를 희망하는 도민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참여자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영상 면접을 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 대기업 현직자와의 실시간 멘토링 및 특강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 지역 내 기업의 원활한 채용과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고정화/기자

당진시, 모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뭉치다

김홍장 당진시장 17일 행복얼라이언스 데이 참석

북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돕기 위해 당진시가 행복얼라이언스에 동참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결식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돕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 출범해 현재 100개 이상의 회원사가 참여 중으로 코로나19에 맞서 아이들의 일상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등 취약 계층 아동들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개최된 '2020년 행복얼라이언스 데이'에 참석해 성과공유 및 아동의 결식문제 해결 필요성과 민관협력 등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 시장은 "아동을 사회의 주체로 바라보아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장으로써 이번



프로젝트를 잘 수행해 더 많은 회원 도시의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0월 30일 전국 지방정부 중 다섯 번째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을 맺고 충분히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결식우려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아동 100명을 발굴해 행복두끼를 지원한다. 한편 유니세프 아동친

화도시 당진시는 아동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안전을 위한 어린이안전조례를 제정하고 반짝놀이터, 찾아가는 놀이터, 잘 노는 우리학교 만들기 사업과 아동참여단, 놀이환경 시민조사단, 온라인 소통창구 등 아동의 놀권리와 참여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원호/기자

서산시, 건강한 겨울나기 준비 한랭질환 조심하세요

서산시보건소 내년 2월까지 한랭질환 주의 홍보 실시

서산시가 초겨울에 접어들면서 큰 일교차로 인한 시민들의 한랭질환 주의를 당부했다.

서산시보건소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서산의료원과 서산중앙병원 2개 의료기관을 통한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감시체계는 내원하는 환자 사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정보를 수치화하고 이를 통해 환자에 대한 주의 환기와 지역에 맞는 예방 행동을 유도해 시민의 건강 보호 임무를 수행한다.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며 대처가 미흡할 경우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추위에 취약한 심혈관 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층에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실내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유지, 환과 시 야외활동 자제, 외출 시 내복 및 장갑, 목도리, 마스크 착용 등을 권장했다. 기상청은 따르면 올겨울 평년과 평균기온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산시보건소는 19일부터 선제적으로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한랭질환 예방 및 기본수칙, 대처요령 홍



보캠페인을 펼치는 등 내년 2월까지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기력 서산시보건소장은 "적절한 실내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고 날씨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추운 날씨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특히 체온 유지에 취약한 어르신과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환경미술 프로젝트 연계 '나인 드래곤 헤즈' 현장 퍼포먼스 진행

2020 대청호 환경미술 프로젝트 '나인 드래곤 헤즈' 현장 퍼포먼스 진행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이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문의면 선착장 맞은편 숲과 대청호미술관 전 시설에서 '2020 대청호 환경미술 프로젝트' 참여작가인 '나인 드래곤 헤즈'의 '쭈그리진 구름'과 연계한 현장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대청호 현장에서 동시대 '환경'에 대한 인간 중심적 사고와 시스템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사유 방식을 조명하는 2020 대청호 환경미술 프로젝트 '움직이는 물'의 연계 행사로 '나인 드래곤 헤즈' 참여 작가 중 박병욱, 박효성, 구소영의 참여로 진행된다.

'나인 드래곤 헤즈'의 야외 현장 퍼포먼스는 대청호의 가장 소수하지만, 대청호를 만끽할 수 있는 문의면 선착장 건너편 숲에서 나뭇가지 위 공중에 매달린 고무보트와 바닥에 원형으로 쌓아 올린 돌, 새털 오브제 설치 속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우선 구소영 작가는 '쭈그리진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이 자연을 소유하고 변형하는 과정에서 자연은 인간 능력을 시험하는 대상, 도전과 정복의 대상으로 결국에는 인류가 얻지 못할 것이냐는 질문으로 물을 바라보고 두 번째 박병욱 작가는 '낚시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엉뚱하게 변형되어가고 있는 대청호 자연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함께 고민 하자는 내용으로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박효성 작가의 '나무 아래서'는 대청호미술관 전시실에서 자연으로부터 얻은 것은 자연으로 돌려 보내자는 내용으로 '물을 마신다'라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전시 '움직이는 물'은 2020년 첫발을 내딛는 '대청호 환경미술 프로젝트'와 기존 '대청호미술관 기획전'의 연계를 통해 대청호미술관 전관과 조각공원, 문의면 대청호 일원에서 12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시 기간 중 문의문화재단지와 대청호미술관을 찾는 관람객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술관 관람 예절을

더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전시 연계 프로그램 '어서 와요, 뮤티켓의 숲'을 운영한다. 또한, 대청호미술관의 숲은 장소인 3층 옥상에서는 11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꼴차와 함께하는 미술관 'Bee with U'를 진행한다.

미술관 옥상에서 문의면 양봉가 '해밀당'이 채밀한 달달한 꼴차와 함께 꼴벌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을 만날 수 있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자율적 체형 방식으로 운영한다.

최만식/기자

세종시설공단, 행복아파트 입주민 위한 맞춤형 안내서 배포

행복아파트 정보 및 공동생활 에티켓 안내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세종시 영구임대주택 행복아파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자주 문의하는 사항들을 한 곳에 담아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배부되며 단지안내, 계약조건, 계약자 유의사항, 퇴거절차, 인근편의시설, 공동생활에티켓, Q&A 등 꼭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다.

또한,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방법, 편의시설 위치, 전화번호 등 생활 민원 정보를 제공해 신규 입주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관계자는 "행복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거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전남도, 11월 농촌융복합산업인 선정

‘산들레식품’ 백소연 대표...어머니 손맛 살린 김치 연매출 7억

전라남도는 11월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장성군 ‘산들레식품’ 백소연 대표를 선정했다. ‘산들레식품’은 옐로우시티와 황룡강으로 알려진 장성 동화면에 소재하고 있다. ‘산과 들이 노래하는 자연을 그대로 담다’를 뜻한 산들레는 김치류, 식혜 등 전통식품을 생산중인 6차산업 인증경영체로 체험텃밭, 체험장, 가공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10년 백소연 대표는 어머니의 권유로 발효식품사업에 뛰어들었다. 부모님과 시작한 김치사업과 관련해 당시 대규모 회사를 제외하고도 전남에 김치브랜드만 100여 개가 넘는 등 이미 포화상태였다. 백 대표는 김치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산들레만의 차별화된 아이템 개발에 매진했다. 김치를 소비하는 지역특성과 개인 입맛·취향에 따라 속재료와 맵기가 다르다는 것을 착안해 고객 1:1 맞춤형 김치를 담게 됐다. 산들레 김치는 지역에 따라 서울식은 새우젓, 전라도식은 멸치젓, 보통식은 황석어젓 등의 젓갈

을 사용한다. 맵기 정도는 순한맛, 중간맛, 매운맛 등 단계로 나눠 ‘9가지 맛 김치’로 차별화해 전국민의 입맛을 겨냥하고 있다. 김장배추로 한해 4만 포기를 사용해 일부는 직접 재배하고 3만 5천 포기는 인근 농가들과 계약재배한 고품질 배추를 엄선해 쓰고 있다. 당일제조 및 당일판매 원칙을 고수하며 ‘산들레푸드맘’ 누리집과 전남 인터넷 쇼핑몰 ‘남도장터’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중이다. 백 대표의 고객 맞춤형 지원과 열정 덕분에 설립 4년차부터 연매출 4억 5천만원에 달했으며 지난해 6억 4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뤘다. 지난 2016년 교육부가 주관한 직업체험 인증기관인 ‘꿈길 체험처’로 선정, 우리음식쿠킹클래스 강좌를 개설해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김치 담그기와 떡·식혜 만들기 등 체험활동으로 연간 1천여명이 방문해 지난해 1천 500만원의 연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백소연 대표는



“국내 고객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입맛에 맞춰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판로개척 등 수출시장 확대에 앞장 서겠다”며 “노하우와 현장경험을 토대로 김치의 우수성을 알려 6차산업 성공모델로 자리잡겠다”고 말했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산들레식품은 고객 맞춤형 지원

경주시 공무원, 물분야 기술사 3관왕 기염 달성

물 분야 전문 역량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해 나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예코물센터에 근무하는 김영기 하수시설팀장이 지난 13일 제122회 수질관리기술사에 최종 합격해 물 분야 최고 권위 자격종목인 상하수도기술사와 수자원개발기술사에 이어 물 분야 기술사 3관왕을 달성했다. 김 팀장은 그동안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 동해안 지방상수도 건설, 갑포댐 건설, 덕동댐 관리, 화랑마을 건설사업, 하천정비사업, 상하수도와 하천분야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지진,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업무를 맡아 물 분야에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하며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최근에는 현국 소현처리부구 하수관거와 외동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등 400억원 규모의 신규국비사업 선정에 힘을 보탰으며 본연의 업무 외에도 상하수도, 수자원 분야에 경주시 설계자문위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주시정에 다양하게 기여하고 있다.



김 팀장은 “실무경험과 더불어 많은 생각과 고민이 전문성의 시작이며 시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 전문직으로 기여하는 공직자가 되고 싶다”며 “개인적으로 팔순이 넘어도 열심히 생활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하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 성과를 이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 말했다.

한반식기자

당진시 이원태 식량작물팀장 동오농업과학기술인상 수상

당진 해나루 사과 중심 ‘탑프루트’ 단지 육성에 기여

당진시는 동오농촌재단이 주관한 ‘2020년도 동오농업과학기술인상’ 기술 부문에서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이원태 식량작물팀장이 우수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동오농업과학기술인상은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을 선도하며 한국 농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농업과학기술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 이원태 식량작물팀장은 1993년 1월에 농촌지도사로 임관해 지역에 과수, 특작, 벼 등 다양한 작목을 대상으로 새로운 농업기술 확대 보급에 노력했으며 농가 소득 증진과 경영개선, 농업인 학습단체와 농업인 교육 활성화 등에 앞장서 당진 농업·농촌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특히 당진 해나루 사과 중심으로 ‘탑프루트’ 단지를 육성해 당진사과연구회가 2011년에는 대통령상, 2013~2014년 2년 연속 장관상을 받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에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원태



김원호기자

몽탄면 고봉석 씨, 농업인의 날 장관표창 수상 ‘영예’



몽탄황금한우 영농조합법인 고봉석 전 대표가 제25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농업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정부포상 공모를 실시한 결과 고봉석 씨가 장관표창 대상자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 고 전 대표는 한우 고급육 생산과 사양기술을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한우개량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

조기식기자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랜선으로 만나는 저자특강 개최

문영숙 작가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다’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늑내골실버작은도서관에서는 오는 11월 27일 오전 10시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다’ 문영숙 작가를 초청해 온라인 저자 특강을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일상에 위로를 건내며 인생2막에 대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

획됐다. ‘100세 시대, 제2의 인생 찾기’와 ‘꿈 성취’란 주제로 인생 후반반전 라이프의 이야기를 들려 줄 예정이다. 저자의 특강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특강이기 때문에 줌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참여를 원하는 시흥시민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최정부기자



감동양주
신성장·새 지평

함께하는 감동 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양주시

김영광이 김영광했다

캠페인 화보 동참 '재능기부'로 선한 행보 '안녕? 나야' 열혈 촬영 중

배우 김영광이 독보적 아우라를 뽐내며 '하이트 프린스'로 변신해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다.

강렬하고 매력적인 눈빛과 대비되는 세인트 룩으로 다크함과 선함이 공존하는 김영광만의 독보적인 분위기가 담긴 화보가 공개돼 여심을 강타한다. 김영광의 소속사 와이드에 스킵피니는 18일 더블유 코리아 12월 호에 실린 김영광의 캠페인 화보를 공개했다. 이 화보는 온택트로 진행된 제15회 '더블유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셀러브리티로 선정된 김영광은 '재능 기부'로 모델로 나서게 됐다. 공개된 사진 속 김영광은 이중적이면서도 독보적인 아우라를 뽐내며 있어 시선을 단번에 집중시킨다.

상의는 하이트 목폴라를 이너로 화려한 문양을 덧댄 화이트 셔츠를 덧입어 순결함과 고고함이 묻어난다. 여기에 성스러운 분위기의 목걸이가 어우러져 김영광 만의 분위기를 담은 '세인트 룩'을 완성했다.

특히 김영광은 눈빛, 두 손으로 독

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강렬하고 묘한 분위기의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깎지 깎지 두 손 포즈는 정형화된 모습에서 조금 벗어나 남성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김영광의 다크함과 선함이 공존하는 '이중적 분위기'가 여심을 설레게 한다. 비주얼, 키, 연기력까지 다 갖춘 배우 김영광은 최근 예능 프로그램 나들이를 통해 대중에게 자신의 모습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자신의 싱글라이프를 '나 혼자 산다'에서 보여주며 솔직하면서도 털털한 성격과 '조카 바보'의 모습으로 여심을 자극한 것. 또한 이어 같은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100일 챌린지'까지 함께해 선한 행보를 이어가며 화제를 모았다.

김영광은 현재 배우로서도 '여심 강탈'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2021년 1월 말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안녕? 나야'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돼 열혈 촬영 중이다.

전순희/기자



"네 목숨 정말 내거야?"

'바람피면 죽는다' 칼로 닭 치는 조여정, 그 다음 대상은?

'바람피면 죽는다' 조여정이 진짜 칼을 들었다. 공개된 예고 영상 속 조여정은 날이 선 칼로 거침없이 닭을 내려치는 아내 '강여주'의 모습으로 등장해 짜릿하고 섬뜩한 범죄 소설가의 카리스마를 제대로 보여준다.

'이혼보다 과부를 택하겠다'는 그녀가 든 칼이 향할 다음 상대는 누구일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또한 고준, 김영대, 연우, 홍수현까지 공포와 위태로움 사이를 줄타기하듯 아슬아슬한 캐릭터들의 향연이 예고돼 '바람피면 죽는다'에 대한 기대를 모은다. 오는 12월 2일 첫 방송되는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바람피면 죽는다' 측은 지난 18일 강여주와 한성우 부부와 숙녀를 알 수 없는 캐릭터들의 향연, 휘몰아치는 전개를 예상케 하는 본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범죄 소설가 아내 여주와 이혼 전문 변호사 남편 우성 부부의 두 얼굴이 담겨 눈길을 모은다. 신체 포기 각서를 내밀며 청혼하는 우성에 대해 "네 목숨 진짜 내 거야?"며 확인 사살하는 여주. 이어 거침없이 칼로 닭을 내려치는 여주와 겁에 질린 채 초조하게 지켜보는 우성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다. "이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과부는 몰라도."라는 여주의 대사 후 이어지는 '국민 남편' 우성의 은밀한 사생활과 여주-우성 부부의 격정적인 키스 장면은 어디로 뻗지

모스는 스토리를 기대케 한다.

"사람은 신발하고 달리, 고쳐서 쓰는 거 아니야"라는 여주와 "미안하니까, 와이프한테 잘하게 되고. 선순환이지"라는 우성의 아슬아슬한 '동상이몽' 상황은 보는 이들에게 긴장하게 만든다.

그런 가운데 여주는 "혹시 제거할 사람 없니? 내가 죽여 줄게"며 소설 속 살인이 아닌 현실 살인을 예고하는 의미심장한 모습을 보여줘 그녀의 진짜 정체에 궁금증이 풀린다.

흥미를 든 누군가의 위협에 다급하게 "아줌마"를 외치는 여주와 꿈속에서조차 공포에 몸서리를 치는 우성의 모습이 휘몰아치며 종잡을 수 없는 폭풍 전개를 예고한다. 마지막 "바람피면 죽는다" 짜릿한 작풍이 될 것 같지 않아?"며 싱긋 웃는 여주의 모습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녀의 진짜 모습에 대한 호기심을 최고치로 끌어올린다. '바람피면 죽는다' 제작진은 "여주와 우성은 신체 포기 각서를 걸고 결혼할 정도로 서로에게 애착함을 가진 부부다. 함께 살지만 숙녀를 알 수 없는 부부의 모습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이들의 모습을 예고편에 담아냈다"며 "여주와 우성의 서로 다른 시선을 통해 그려지는 다채로운 캐릭터들 간의 무섭고도 아찔한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여정과 고준의 아찔한 '킬링 케미'로 기대



를 모으는 '바람피면 죽는다'는 '닝쿨제 굴러온 당신', '황금빛 내 인생' 등 연출력을 뽐낸 김형석 PD와 지상과 첫 시즌제로 큰 사랑을 받았던 '추리의 여왕'의 이성민 작가가 의기투합해 화제를 모았다. 이 밖에도 김영대-연우-송수현-정상훈-이시연-김예원-홍수현-오민석 등 화려

최정부/기자

'라디오스타' 박미선, TV너머 유튜브까지 접수한 힙한

'라디오스타'에서 만나면 더 좋은 친구들 박미선, 바다, 헨리, 재재가 '입담 만렙' 공감 토크와 텐션업 개인기, 활활한 무대로 안방 팬들과 내적 친밀감을 형성했다. 박미선은 노련미 넘치는 입담과 재치로 유쾌한 분위기를 이끌었고 바다는 특유의 텐션을 자랑하며 웃음을 안겼다. 헨리는 '귀요미와 음악 천재'를 오가는 겉치어, 재재는 제기발달 입담과 개인기로 매력 포인트를 터뜨렸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선 온오프라인에서 핫한 '댄션 친구들'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박미선, 바다, 헨리, 재재가 출연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맹활약하며 대중의 '댄션 친구들'이 되어 주고 있는 박미선, 바다, 헨리, 재재는 진솔하면서도 거침없는 입담과 적극적인 리액션, 개인기로 이들이 왜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핫한지 그 이유를 증명했다.

4인 4색 매력과 조화를 뽐내며 '라디오스타'를 통해 만나고 보니 더 친해지고 싶은 매력 포인트를 터뜨리며 빈틈없는 재미를 선사했다. 스페셜 MC로 출연한 박지훈은 자연스러운 진행실력과 함께 귀

여운 매력을 넘어 업그레이드된 상남자의 매력을 발산, 여심을 저격하며 풀럼의 화력을 더했다. 유튜브로 변신해 '댄션 언니'로 불리는 박미선은 8년 만에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노련한 개그우메의 명물해 전 입담을 자랑했다. 후배인 김구라가 힘들 때 생각나는 대나무 숲이라고 밝히는 가 하면, 김구라의 저격수 노트까지 톡톡히 했다. 두 사람의 연륜에서 나오는 티가 타는 풀럼을 선사했다. 유튜브로 사랑받는 박미선은 "잠 애쓰더라는 글이 달렸기에 '무지하게 애쓰고 있다'라고 대댓글을 달았다. 그런데 얼마 후 다른 분들이 대댓글을 달며 저를 위해서 대신 싸움을 해주더라"며 대중과 랜선 친목을 쌓으며 찐 팬이 생겼다고 든든해 했다. "나쁜 기억은 빨리 잊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며 대선배의 애정 어린 조언을 덧붙여 훈훈함을 자아냈다. 가수 바다는 자신이 불러 화제가 됐던 커버곡을 소름 돋는 라이브로 즉석에서 선보이며 디바의 매력을 뽐냈다. 9월 데뷔한 바다는 "아이를 낳고 나니 세상이 행복하고 아름다워 보이더라"며 "아

이를 보고 '너 왜 물만두같이 생겼어?'고 물었다며 출산 비하를 들려줘 시선을 모았다. 결혼 4년 차인 바다는 요리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남편을 자랑하며 "시어머니도 성희는 노래하는 손이 일하지 말라고"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또 바다는 SES 유진의 남편인 배우 기태영이 자신의 남편과 하루에 한 번씩 매력을 어김없이 보여줬다. 늘 밝아 보이지만 때때로 우울할 때 마트를 찾아가 셀프 잘생김을 느끼는 날 운전대를 잡는 이유를 공개해 시선을 모았다. 또 대형기획사를 떠나 다시 연습생으로 돌아간 이유를 들려준 헨리는 강다니엘의 연습실을 몰래 빌려 쓴 적이 있다고 고백하며 "비밀로 해달라"고 해맑게 덧붙여 폭소를 유발했다. 무엇보다 헨리는 이날 신곡 'RADIO' 무대를 선보이며 다양한 악기를 즉석에서 연주하는 것은 물론, 가창력

지 폭발하며 명불허전 음악천재의 역대급 무대를 선사했다. '문명특급' PD 겸 진행자인 재재는 연예인 뺨치는 기, 진행능력으로 '연예인'이란 애칭으로 사랑받는 이유를 증명했다. 재재는 "길을 가다 보면 애매하게 알아보고 놀라더라"며 MSG가 가미된 재연에 나서 웃음을 안겼다. 또 바다와 'MAD', 'V.I.P' 댄스 무대를 꾸며 스튜디오를 후끈 달구더니, 유해진 성대 모사로 막강 예능감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취임한 속 수심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모두 '광탈'했던 긴 취준생 시절의 경험을 밝히며 취준생 향한 진심 어린 응원과 공감의 목소리를 내기도. 방송 후 시청자들은 "오늘 게스트 힐링 조합", "역시 박미선이 웃음포인트를 잘 살리네요", "헨리 고렘 무대 소름, 무대 찢었다", "취준생인데 재재 말에 위로 받았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 주 라디오스타는 김광현, 양준혁, 심수창, 박성광과 함께하는 '야구가 제일 쉬웠어요' 특집이 예고됐다.

최재은/기자

문화도시 성공기원세계 최정상 바리톤 고성현 독창회 영월 공연

영월문화재단은 문화도시 성공기원을 위해 세계 최정상급 바리톤 고성현 독창회를 오는 30일 19:00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입장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창회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해 영월군이 꿈꾸는 '미래를 담은 한반도의 공간 영월 문화도시'의 성공을 기원하는 독창회로써 영월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문명력 양성 사업에 참여한 영월군민들이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화도시 성공기원 세계 최정상 바리톤 고성현 독창회는 일상속에서 코로나로 지친 영월군민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욕구 충족과 일상에서 벗어나 꿈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하게 됐다.

드라마틱 바리톤 고성현은 미국, 독일, 일본, 이태리, 스페인 등 국제적인 공물과 공연을 통해 세계 최정상급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수많은 호평과 찬사를 받아온 우

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악이다. '동양에서 온 대표', '콤파트로 바리토니'이라 불릴만큼 독보적인 성량과 섬세하고 깊이 있는 울림으로 유명하다. 성악을 주제로 한 이번 독창회에서는 고성현뿐만 아니라 영월 출신 테너 신재호와 더불어 KBS 공채 개그맨 박진호의 사회로 구성됐으며 무료공연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영월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유선 ☎033-639-6369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관람하지 못하는 군민들에게도 독창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월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고성현 독창회를 통해서 코로나로 지친 영월군민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으며 "미래를 담은 한반도의 공간 영월 문화도시가 영월군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한국무용협회 보령지부, 제3회 가락의 향연 그날의 울림 공연 개최

가락과 함께 우리 춤의 향연 선배

보령시는 오는 21일 오후 7시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한국무용협회 보령지부 주관으로 제3회 가락의 향연 그날의 울림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이금비 지부장과 양한비, 양세인, 원선에 등 지부회원과 특별 출연자로 청명무용단 오철주 대표, 판소리 명창 박애리, 원유선 아산시 무용협회 지부장 등이 참여하고 악사로는 장구에 박종훈, 아쟁에 이관웅, 대금에 이성준 등도 협연에 나선다. 이날 공연은 달빛아래 상화라는 주제로 한영숙류 태평무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장단으로 피아노 바이올린의 익숙한 악기편성과 현대적인 멜로디를 통해 깊고 우아한 태평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또한 산조-산새의 노래에서는 산새가 바람, 꽃, 강과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모습을 거문고 산조에 다양

한 악기가 함께하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낸다. 2부 소리에서는 최연소 국립창극단원 소리꾼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인으로 KBS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우리 소리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명창 박애리와 함께 축대머리, 너영나영, 사노라면 등 소통과 위로의 무대를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농악의 판굿에 갖가지 기량을 발휘하는 개인놀이인 설장구춤 7인의 군무로 각색한 김병섭류 설장구를 무대에 올린다. 젊은 춤꾼들의 활달하고 민첩한 몸놀림과 함께 다양한 진법들을 현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병윤 문화새마을과장은 "하얀 버선 끝을 따라 한국인 특유의 한과 흥을 풀어난 전통춤과 아름다운 몸짓을 통한 신명나는 디딤새까지 우리 춤의 특색을 비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이번 공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서울여성공예센터 10개 입주기업, 대만 최대 공예박람회 한국대표로 참가

메인 프로그램 '10개 도시 10개의 공예품'에 옫칠 등 다양한 공예품 온·오프 소개

서울여성공예센터 입주기업 10개 팀이 대만 최대의 공예박람회이자 핸드메이드·디자인 박람회인 '2020 POP UP ASIA'에 한국대표로 단독 참가해 아름답고 창의적인 메이드인 서울 공예품을 세계에 선보인다.

서울여성공예센터 입주기업들의 팜업아시아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팜업아시아'는 '16년부터 매년 11월 개최되는 대만의 대표적인 핸드메이드 박람회다. '19년까지 13개국 25개 아시아 도시를 연결했고 500팀 이상의 브랜드, 8만명 이상의 참석자와 수천 명의 바이어가 참여했다. 서울여성공예센터는 서울시 여성공예인들의 창작과 장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복합문화 플랫폼이다. 지난 '17년 5월 개관했다. 현재 53개 여성공예기업이 입주해 있다. 서울시는 11.19~22일 대만 송산문화창의공원에서 열리는 팜업아시아의 메인 프로그램인 '10개 도시 10개의 공예품'에 서울의 우수 여성공예인들의 창의적인 공예품 10점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10개 도시 10개의 공예품'은 해외 도시의 공예품을 소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서울을 비롯해 도쿄, 마카오, 홍콩, 방콕, 쿠알라룸푸르 등 아시아 10개 도시가 참여한다. 소개작에 옫칠을 하고 자개로 기

하학무늬를 장식해 전통적이면서 세련미가 넘치는 컴받침부터 갓끈을 콘셉트로 만든 대나무 소재 안경줄 세트, 도자기로 만든 향꽂이까지 업사이클, 옫칠, 가죽 등의 공예품이 다양한 국가의 공예가, 투자자, 바이어들에게 소개된다. 팜업아시아가 참여 서울여성공예센터 10개 입주기업은 강신영 손설희 안서희 이성민 이지원 장우희 전시는 전영주 홍지은 황실이다. 이번 팜업아시아 참가는 서울여성공예센터 수탁 운영기관인 사회적기업 '일상예술창작센터'가 '18년부터 팜업아시아 측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 관계를 만들어온 결과다.

앞서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에 대만의 공예품을 선보인 데 이어 팜업아시아 측에서 참가를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일상예술창작센터'는 매년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를 개최하며 다양한 국가들과 지속적인 해외 교류를 통해 한국 공예가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왔다. 팜업아시아는 2년 간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에 참가해 소속된 아티스트의 대표 작품을 선보였다.

2019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국제세미나를 통해 활동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작년엔 서울여성공예센터를 직접 방문해 입주기업 스튜디오를 살펴보고 한국의 여성공예창작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일상예술창작센터와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다. 올해 팜업아시아는 코로나19로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오프라인 현장 전시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전시를 병행한다. 시는 팜업아시아 참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공예창업자들이 아시아 무대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해외 판로를 새롭게 개척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정 서울여성공예센터 센터장은 "한국 공예품은 세밀한 기술력과 디자인 독창성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박람회 참가 등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지만 이번 팜업아시아 전시 참가를 계기로 향후에도 최선을 다해 해외진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김해시, 김해형 뉴딜사업 종합계획 발표

2025년까지 8111억원 투입 추진

김해시는 2021~2023년 진례면 테크노밸리에 278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센싱유니트 제품화 실증센터를 구축해 제조혁신 필수부품인 스마트센서 표준모델 생산거점 도약을 추진한다. 또 2021~2022년 진영읍 일원에 160억원을 들여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 도시 소생태계 조성, 스마트 대기관리시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해 스마트 그린도시를 조성한다. 시는 2025년까지 8111억원을 투입하는 이 같은 김해형 뉴딜사업 종합계획을 18일 발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정부의 한국형 뉴딜사업에 대응한 것으로 디지털, 그린, 사회안전망 강화 3개 분야별로 54개 사업을 추진해 3262개 일자리 창출이 시의 목표이다. 디지털뉴딜은 5G, AI 디지털 산업 지원과 비대면산업 활성화 지원,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세분화해 추진한다. 그린뉴딜의 경우 녹색친화적 생활인프라 조성, 저탄소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확산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는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디지털 소외계층 접근성 강화로 나뉜다. 역점 추진할 김해형 뉴딜 10대 핵심사업도 확정했다.

디지털뉴딜 분야는 32개 사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비대면 의료기기 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스마트

센싱유니트 제품화 실증기반 구축사업 스마트 안전감시체계 구축 4개 사업이 선정됐다. 그린뉴딜은 17개 사업 가운데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모빌리티 보급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미래형자동차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성능검증 체계 구축 4개 사업이 포함됐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는 5개 사업 중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2개 사업이다. 시는 김해형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서간 협업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세부사업 추진상황 수시 점검과 신규 사업 발굴에 힘쓰고 부서 간 협업사업은 반장이 지휘하며 연 2회 김해형 뉴딜사업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뉴딜과 관련된 공모사업, 특히 시 중점사업인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디지털, 그린 뉴딜 신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허성근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산업기반과 인적·물적 자원을 반영한 김해형 뉴딜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서울시, 전국 최초 '최후의 주거전선' 쪽방촌 업그레이드 위한 평면개발

서울시가 몸만 간신히 높일 수 있는 좁은 방에 부엌,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최후의 주거전선'으로 꼽히는 쪽방촌의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표준평면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인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쪽방 거주민의 생활특성과, 쪽방의 공간·환경적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주거모델이다. 현재 서울시내 쪽방 거주자는 약 3,000명으로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이 35.5%를 차지한다. 10명 중 6명은 기초생활수급자다. 쪽방의 구조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좁고 열악한 개별실 미만 77.3%에 공동현관, 화장실, 주방이 배치돼 있는 구조다.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 없이 좁은 골목길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발

한 표준평면을 쪽방 정비사업의 공공주택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쪽방 거주민이 재입주하는 공공주택에 적용해 비주택 주거로 내몰렸던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인다는 목표다. 우선, 모든 표준평면 유형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으로 계획해 인간다운 삶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과 편리함, 위생, 심리적 치유, 사회적 회복에도 주안점을 뒀다. 표준평면 유형은 1인가구를 기본으로 거주자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공유주택 개념을 반영해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3개 평면은 1인실 다인실 특성화실이다. 1인실 : 최소주거면적에 준하는 면적에 독립된 침실과 욕실 및 주방으로 구성된다.

다인실 : 다른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관리와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침실은 독립하고 화장실·주방·거실 등은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특성화실 : 스스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만큼 관리자, 보호자가 함께 거주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침실을 개방하고 화장실·주방·거실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모든 공간은 무장애 디자인이 적용되고 수납을 고려한 가구, 치유적 환경을 위한 색채, 채광·조명 등 설비와 마감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된다. 각 평면별 조합·배치 방식도 마련했다. 기존 쪽방촌에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 골목길처럼 입주민 누구나 집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공용공간을 배치한다. 거주자 특성에 따라 심리치료실, 자활프로그램실, 직업훈련실 등도 배치하도록 했다.

개인공간의 프라이버시는 확보되지 폐쇄적인 공간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공유·공용공간을 집약적으로 배치, 거주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로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은 지역주민과 거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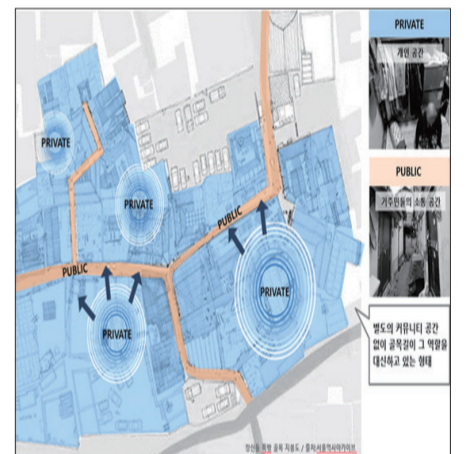
서울시는 그 시작으로 50년 된 오래된 쪽방촌을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정비하는 '영등포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사업'에 적용한다는 목표로 관련 주체들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은 오래된 쪽방을 철거하고 쪽방 일대 총 1만㎡에 쪽방 주민들의 재입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영등포구, LH, 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서울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국토부, 민간돌봄시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향후 고시원, 빈집 등을 활용한 1인가구용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내 쪽방은 5개 지역, 용산구 동자동·갈원동, 중구 남대문로 5가, 종로구 창신동)에 밀집되어 있다. 5개 밀집지역 내 쪽방민들은 314가 동, 3,830호로 작년 말 기준 총 3,085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실거주자의 특성에 맞춰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위생적이고 치유적인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며 "이런 정책기조를 반영한 선례를 만들기 위해 이번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맞춤형 평면을 현재 진행

중인 영등포 쪽방촌 일대 정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갈 것이다. 단위세대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이어 단위세대별 조합한 건축매스 및 단지계획 연구도 진행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농수산물은 **진도** 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몰 검색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우미건설, GTX-A·복선전철 등 교통 뛰어난 '동탄우미뉴브' 분양중

우미건설이 교통 호재가 많고,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동탄테크노밸리에 지식산업센터 동탄 우미 뉴브를 분양 중이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약 49,881㎡, 지하 1층~지상 21층 규모로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393(도시지원시설용지 29-1블록)에 들어선다.

동탄 우미 뉴브는 가까운 SRT 동탄역을 이용해 강남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GTX-A노선(동탄역~삼성역)이 예정돼 있으며, 복선전철(인덕원~동탄)도 2022년 착공을 예정하고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지가 될 전망이다. 용인·서울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봉

담~동탄) 등 광역도로망도 가깝다. 트램 2호선(병점역~동탄신도시)도 도보권 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삼성전자 NANOCITY, 한국 3M, 두산중공업, 원자력 I&C 등 대기업이 가까워 산업 연계성도 우수하다. 동탄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13,000여 개 기업이 수원, 용인 권역에 위치해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

우미건설만의 특화설계도 적용된다. 제조업을 위한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지상 6층까지 지원되며, 사무실 앞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시스템도 도입한다. 소규모 업체를 위한 섹션오피스형에는 전 호실에 발코니도 제공한다.

동탄 우미 뉴브는 실용적인 디자인 설계도 도입한다. 주변 간섭을 최소화한 타워부 이격 배치로 조망권(일부세대)을 확보했고, 외관 디자인이 탁월한 근린생활시설 '브릭스톤'이 지상 1층에 들어설 전망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서도 교통입지가 탁월해 산업 연계성이 기대되고, 풍부한 배후수요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